

# 經濟史學의 發達過程 (其一)

金 宗 炫\*

<目 次>

- I. 序 言
- II. 經濟史學의 成立과 初創期の 諸研究
- III. 20世紀 前半期에 있어서의 經濟史學의 發達(以上 本號)
- IV. 第2次 世界大戰以後의 經濟史學의 새로운 展開
- V. 結 語

## I. 序 言

經濟史學의 成立時期를 明確하게 規定하기는 어렵다. 經濟史의 敘述 그 自體는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데 데해서 制度的으로 보아 經濟史講座가 歐美의 여러 大學에서 開設되게 된 것은 19世紀末~20世紀初에 이르러서 였다. 그러나 다른 學問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經濟史學의 成立時期를 設定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이 獨立學問으로서 明確한 目的과 研究對象 그리고 研究方法를 가지고 研究가 이루어진 時期를 基準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經濟史가 하나의 獨立學問으로 成立되게 된 時期는 大體的으로 보아 19世紀 中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經濟史가 19世紀 中葉의 獨逸歷史學派經濟學의 展開 속에서 成立의 契機를 가지고 經濟史研究가 進展되었기 때문이다. 「經濟史」라는 主題를 가진 최초의 研究業績인 이나마 스테르네크의 『獨逸經濟史』가 出版된 것은 1879年이었다. 따라서 經濟史學은 成立 후 1世紀를 지나 이제 2世紀제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經濟史學은 時代에 따라 그리고 經濟史家 個人 또는 集團에 따라 問題意識과 研究方法의 變遷을 겪으면서 크게 발달하였다. 經濟史學은 독립學問으로서의 地位를 가지면서도 그 成立事情과 學問의 性格上 經濟學分野에 속하면서 歷史學分野에도 속하는만큼 이 둘 學問分野의 발달과 聯關을 가지면서 발달하였다. 過去 1世紀 이상에 걸친 期間에 무수한 經濟史家에 의해서 방대한 研究成果가 集積되면서 經濟史學은 社會科學의 한 分野로서 발달하여 오늘날 高度의 水準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오늘날 經濟史學이 高度의 研究水準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問題意識이라든가 研究方法에 있어서 劃一的이라는 것은 아니다. 특히 經濟史學의 경우 다같이 人類의 經濟發展의 歷史的 過程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認識하는 視角이라든가 方法은 時代的 背景이라든가 經濟史家 個人 또는 集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며 사실 달라왔다. 더구나 研究가 進展되고 高度化됨에 따라 그와 같은 視角이라든가 方法은 오히려 多樣해지고 研究分野도 特殊化 專門化되기 마련이다. 특히 第2次大戰 후 研究上의 이와 같은 多樣化와 特殊化 專門化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속에서 相互批判이 이루어지면서 經濟史學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經濟史學研究上의 多樣化 및 特殊化 또는 專門化가 研究의 進展에 따라 不可避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研究를 高度化하는 役割을 한다는 데에서 肯定的·積極的으로 評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窮極的으로는 統合化 또는 綜合化되면서 經濟史體系의 새로운 構成에로 수렴될 때에 비로소 의의가 있을 것이다. 研究가 多樣化하고 特殊化·專門化하여 같은 經濟史學의 領域內에서도 自己領域에만 들어 앉아머리고 다른 領域의 研究를 理解하려고 하지 않거나 沒理解한다면 그만큼 研究가 限定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經濟史學의 課題는 一般的으로 말해서 高度의 水準에 도달한 研究成果 위에서 그들을 어떻게 統合化 또는 綜合化하면서 經濟史體系를 새로이 構成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學界의 現實에서 本稿는 經濟史學의 발달과정을 主要歐美諸國을 중심으로 考察한 것이다. 經濟史家의 分析視角과 研究方法이 多様な 現實에서 經濟史學의 발달과정을 考察한다는 것은 自身の 研究의 位置를 明確하게 인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經濟史學이 成立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全期間에 걸친 經濟史의 諸方法과 研究가 主要한 經濟史家와 그들의 主要研究業績을 통해서 考察될 것이다. 本號에서는 經濟史學의 成立過程과 初創期의 諸研究 그리고 20世紀 前半期를 통한 經濟史學의 本格的인 發達過程을 考察하고 다음 機會에 第2次大戰以後 經濟史學의 새로운 展開를 「經濟成長史學」, 美國에서의 「새로운 經濟史」,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아날學派」의 「새로운 歷史學」 등을 비롯한 새로운 研究傾向과 그에 대응한 研究成果를 中心으로 考察할 豫定이다. 그런데 經濟史學이 成立한 이후의 全期間에 걸친 主要歐美諸國에서의 그의 발달과정을 考察한다는 것은 그 自體가 小稿와 같은 형태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막대한 課題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 主題에 관한 극히 一般的인 展望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II. 經濟史學의 成立과 初創期의 諸研究

### 1. 經濟史學의 成立

經濟史學의 成立時期를 언제로 보느냐를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켈렌벤즈(Herman Kellenbenz)는 經濟史學의 搖籃期를 古代의 希랍에서 重商主義時代에 이르기까지의 經濟思想 및 經濟史의 敘述에서 찾고 있다.<sup>(1)</sup> 事實 經濟史의 敘述 자체는 오래 전부터의 文獻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經濟史가 하나의 學問分野로 成立되게 된 契機는 18世紀의 啓蒙思想에 의해서 그것이 文化史의 일부로서 그 地位를 인정받은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啓蒙時代에 들어서 歷史는 王朝 또는 教會中心에서부터 一般市民의 生活에 研究의 價値를 認定하고 市民의 經濟生活에 관한 研究로 關心이 移行하게 되었다. 啓蒙思想에서는 現象을 因果關係에서 說明하고 進歩의 觀念을 導入함으로써 近代歷史學에 先驅의 役割을 했던 것이다.

啓蒙主義思想에 영향을 받은 歷史的 認識을 先驅로 해서 近代歷史學이 成立되게 된 것은 19世紀의 浪漫主義思想의 영향 밑에서였다. 啓蒙思想은 經濟現象을 人類에 普遍的인 文化現象으로 보고 그 一般의 特性을 重要視하였다. 文化現象으로서의 經濟現象은 人間에 共通되는 合理的 理性的 發現이라고 생각되었다. 그것은 스미스(Smith)에서 비롯되는 普遍妥當한 經濟法則=一般理論을 追求하는 古典學派의 經濟思想에 對應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浪漫主義에서는 主觀의 自由가 問題가 되고 民族이라든가 國家의 特性이 強調되었다. 여기에 國家, 民族 또는 時代에 따른 歷史的 特殊性의 研究가 進展됨에 따라 近代歷史學이 成立하게 되었다. 經濟史學도 이와 같은 背景에서 成立되었던 것이다.

經濟史學은 독일 歷史學派의 經濟學과 함께 成立하였다. 독일 歷史學派經濟學은 浪漫主義와 民族主義에 기초를 두고 古典學派經濟學에 대항하여 後進國 독일의 經濟的 現實에 立脚한 國民經濟學을 樹立하려 하였다. 歷史學派의 經濟學者들은 古典學派의 經濟學을 一般理論이 아니라 先進 英國의 經濟的 現實에서만 有利하게 適用될 수 있는 特殊理論이라고 主張하고 當時의 독일의 經濟的 現實을 土臺로 한 國民經濟理論을 構築하려고 하였다. 國民經濟學의 目標은 독일이 도달한 經濟發展段階를 究明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經濟政策을 導出した는데 있었다. 國民經濟學의 內容은 一般理論이 아니라 經濟發展段階論이었으며 따라서 그 方法은 歷史的 方法이었다. 즉 一國의 經濟發展段階를 認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經濟發展過程을 歷史的으로 認識할 必要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독일 國民經濟學은 歷史學派

(1) Herman Kellenbenz, Grundlagen des Studiums der Wirtschaftsgeschichte, Köln-Wien, 1973.

經濟學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해서 經濟史學이 成立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독일 歷史學派經濟學者들은 리스트(F. List)<sup>(2)</sup>를 위시하여 로셔(W.G.F. Roscher),<sup>(3)</sup> 힐데브란트(B. Hildebrand),<sup>(4)</sup> 크니스(K.G.A. Knies)<sup>(5)</sup> 등에 의해 代表되는 前期歷史學派에서 뷔허(K. Bücher),<sup>(6)</sup> 슈몰러(G. Schmoller)<sup>(7)</sup> 등에 의해 代表되는 後期歷史學派에 이르기까지 歷史的 方法에 의해서 經濟發展段階를 究明하고 各各 獨自의인 基準에 따라서 經濟發展段階論을 主張하였다.

특히 歷史學派經濟學의 始祖라고 말해지는 리스트經濟學의 특징은 첫째 生産力을 古典學派와 같이 勞動의 生産物에 限하지 않고 教養 및 其他 모든 要素를 國民的으로 포함한 國民生産力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 둘째 그 生産力은 國民經濟가 英國과 같이 農·工·商의 段階에 도달했을 때에 최고로 발휘된다는 것, 그리고 세계로 諸國의 國民經濟가 農·工·商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는 自由貿易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後進國에서는 保護貿易과 經濟主體에 의한 經濟發展의 誘導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거기서는 理論보다도 政策이 中心이 되고 있다.

리스트에서 後期歷史學派의 首領格인 슈몰러에 이르기까지 歷史學派에 속하는 學者들은 各者가 一定한 基準을 가지고 經濟發展의 段階를 設定하였다. 그 중에서도 그 후 經濟史에 있어서의 중요한 概念으로 利用되거나 批判되면서 넓게 論議된 것은 힐데브란트와 뷔허의 그것이었다. 舊歷史學派의 힐데브란트는 財貨의 交換에서의 流通手段의 變遷을 基準으로 經濟發展의 諸段階를 自然經濟(Naturwirtschaft), 貨幣經濟(Geldwirtschaft) 및 信用經濟(Kreditwirtschaft)로 區分하였다. 한편 後期歷史學派의 뷔허는 財貨가 生産되어 消費되는 距離의 長短을 기준으로 發展의 諸段階를 封鎖의 家內經濟의 段階(die Stufe der geschlossenen Hauswirtschaft), 都市經濟(die Stufe der Stadtwirtschaft) 및 國民經濟의 段階(die Stufe der Volkswirtschaft)로 區分하였다.

그러나 經濟發展段階論의 課題는 前期와 後期에 따라서 明白히 相違하였다. 前期에 있어서 그것은 先進國 英國에 對抗한 獨逸民族主義에 기반을 두고 經濟政策을 樹立하는 데 있어서의 理論的 根據를 提示한다는 任務를 가진 것으로서 거기에서는 理論·歷史·政策이 分離되지 않고 歷史는 政策을 導出하기 위한 手段으로 간주되었다. 그에 대해서 後期에서

(2) F. 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Stuttgart und Tübingen, 1841.

(3) W.G.F. Roscher, System der Volkswirtschaft, 5 Bde, 1854~94.

(4) B. Hildebrand, "Naturwirtschaft, Geldwirtschaft und Kreditwirtschaft,"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II, 1864.

(5) K.G.A. Knies, Die Politischen Ökonomie vom Standpunkt der geschichtlichen Methode, 1853.

(6) K. Bücher, Die Entstehung der Volkswirtschaft, Vorträge und Aufsätze, 2 Bde, 1893.

(7) Gustav von Schmoller, Grundriss der allgemeine Volkswirtschaftslehre, Leipzig, 1900.

그것은 政策導出이라는 實踐의 目的을 위한 手段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時代的으로 無限히 多樣하게 나타나는 經濟現象을 認識하기 위한 整序의 原理로 간주되게 되었다. 後期歷史學派에 이르러 經濟史學은 獨立科學으로 새로운 發達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經濟史學을 成立·展開시킨 經濟發展段階論에 대해서는 많은 批判이提起되면서 經濟史的方法은 擴大되었다. 基本的 批判點의 첫째는 經濟現象의 有機的 發展이라는 意味에서 하나의 合目的性이 認定되나 經濟發展의 普遍的 方法이 너무나 一般的으로 固持되고 有機的 發展이 發生하는 方法, 즉 한 단계에서 다른 段階로 옮겨가는 基本的 契機, 또는 段階間의 內的 因果關係가 論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첫째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歷史의 類型的 認識에서 오는 史實認識의 不充分으로 歷史認識의 過度한 一般化를 초래 하나의 類型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러나 歷史發展의 계기로서는 重要的 諸史實을 例外的인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그에 正當한 評價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批判과 관련해서 實證이 強調되고 實證의 研究가 進展되었다. 그래서 實證的 研究를 통해서 經濟發展段階論을 批判한 메이어(Edward Meyer)(그는 實證史學의 代表的 學者이며 主著『古代史』(Geschichte der Altertums, 5 Vols., 1884~1902)는 劃期的인 名著임), 돕슈(Alfons Dopsch), 벨로우(Georg von Below), 마이어(Leodor Mayer) 등은 「封鎖的 家內經濟」라든가 「都市經濟」 등의 諸概念이 史的 根據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論證하고 個個의 段階의 특징은 全體的으로 보아 만드시 妥當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指摘하였다.

특히 후기 歷史學派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쾰바르트<sup>(8)</sup>는 批判하면서 段階 및 그 基準에 異論을 提起하고 「經濟體制」라는 概念으로 問題의 인식을 深化시켰다. 그는 그러한 段階와 基準을 가지고 特定한 經濟事情의 本質을 充分히 表現할 수는 없다고 보고 經濟生活의 個個의 現象을 相關的으로 認識할 수 있는 概念=理念으로서 「經濟體制」를 導入했던 것이다. 쾰바르트는 「經濟體制」를 가지고 첫째로 一定한 經濟的 指向에 의해서 支配되고 둘째로 一定한 秩序와 組織을 가지고 있으며 세째로 一定한 技術을 應用하고 있는 精神的 統一體로 간주되는 經濟機能을 理解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體制에 관해서 여러가지 存在指標가 나타났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쾰바르트는 經濟生活의 形態에서 일어날 수 있는 重要的 여러가지 可能性을 부여함과 同時에 많은 經濟體制를 整理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① 보다 이른 時期의 自給經濟 ② 手工業 ③ 資本主義였다. 그는 이와 같이 系統的으로 解明함으로써 여러 가지 經濟體制(經濟時代)의 歷史的 推移를 區別한다는 것이 可能하

(8)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Historisch-systematische Darstellung des gesamteuropäischen Wirtschaftslebens von sein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3 Bde, München und Leipzig, 1916~27.

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좀바르트는 段階論的 要素를 考慮에 넣으면서도 自身이 말하는 바와 같이 부여의 機械的 段階論에 대해서 個個의 指標(基準)에 內的 關連을 가지게 하는 理念을 追求했던 것이다.

叙上한 바와 같이 經濟史學이 독일 國民經濟學의 展開를 계기로 해서 成立·發達한 것이지만, 거의 같은 時期에 展開된 마르크스主義도 또한 經濟史學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르크스經濟學은 「經濟發展의 法則」의 究明을 追求하였지만 그 경우 「經濟發展의 法則」은 바로 歷史發展의 基本法則으로 認識되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唯物史觀에 기초를 둔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는 物質的 生産力=經濟로서의 下部構造가 政治·思想 등 上部構造를 規定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는 物質的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을 內的 계기로 해서 歷史는 原始共產制→古代奴隸制→中世封建制→近代資本制라고 하는 段階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主義는 歷史를 經濟的으로 해석함으로써 經濟史에 絶對的인 重要性을 부여하였고 그것만으로도 經濟史研究를 크게 刺戟하였다. 더구나 그것은 같은 段階論的 認識을 하면서도 歷史學派의 그것이 밝히지 못한 「發展法則」을 理論的으로 提示함으로써 動態的 歷史認識의 方法을 提示했던 것이다.

그러나 經濟史의 方法論으로서 마르크스主義 經濟史學도 基本的인 몇가지 점에서 批判되었다. 첫째로 歷史를 經濟的 一元論으로 解釋하는 데 대한 批判이다. 이것은 經濟生活이 文化諸領域에서 가장 重要的 領域으로 보면서도 여타 諸領域의 意義도 正當하게 評價하려는 유럽의 經濟史學界의 正統과는 매우 對照的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베버는 經濟 이외의 文化諸領域의 社會現象이 經濟的 制約을 받으면서도 그에는 還元시킬 수 없는 各各 「固有한 法則性」에 따라 獨自的인 運動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經濟의 움직임에 逆으로 作用한다고 하여 社會現象의 多元的 關係를 強調하였다. 둘째로, 經濟發展段階의 設定을 위한 史實의 類型的 認識에 대한 批判이다. 그것은 歷史學派의 方法에 대한 批判과 통하는 것이고 歷史發展의 理論模型에 대한 實證的 經濟史學者들로부터의 強力한 批判이었다. 마르크스主義 經濟史家는 經濟史研究에 큰 刺戟과 影響을 주면서도 그 方法에 대해서는 歷史學派의 그것에 대한 것과 함께 批判되었던 것이다. 經濟史는 一般的으로 史料의 엄밀한 考證·批判을 통한 實證이 強調되면서 經濟理論과는 멀어지고 社會經濟史로 發達되게 되었던 것이다.

## 2. 初創期的 諸研究

經濟史學의 成立契機가 直接的으로는 독일 歷史學派의 經濟學에 있었던만큼 19世紀 中葉에서 20世紀初에 걸쳐서 經濟史의 研究는 독일을 中心으로 활발하게 展開되고 그것은 英國 이라든가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諸國에도 큰 影響을 미쳤다. 위에서 든 歷史學派 經濟學者

들 이외에도 많은 國民經濟學者 또는 史學者에 의해서 經濟史研究가 進展되었다.

독일에서는 19世紀에 들어서 歷史主義(Historismus)가 나타남에 따라 여러 곳에서 歷史協會라든가 博物館이 設立되면서 地方史研究가 盛行하게 되고 1840年代 以後에는 各種의 地方史研究가 나타났다. 그 속에는 經濟史部門에 充分한 評價를 한 研究라든가 都市·地域史研究 그리고 地方的인 古文書集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經濟史의 研究가 本格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世紀 中葉 이후에 들어서였다. 實際로 講義가 行해지지는 않았지만 「經濟史」라는 用語를 처음 使用한 것은 키젤바하(Wilhelm Kiesselbach)였으며 그것은 1858年の 하이델베르크大學의 講義要覽에서였다. 마우러(Georg Ludwig von Maurer)는 1862~63년에 독일 中世의 農業 및 土地制度에 관한 古典的 研究<sup>(9)</sup>와 함께 뒤이어 마르크共同體의 制度 속에서 都市制度의 마르크共同體의 起源,<sup>(10)</sup> 그리고 마르크共同體—莊園的 村落의 都市的 共同體組織<sup>(11)</sup>을 研究하였다. 한센(Georg Hansen)은 1861년에 18世紀 以前에 東部獨逸에서 支配的이었던 農場領主—農民的 諸關係의 特異한 農業組織의 型을 밝힌 先驅的 研究<sup>(12)</sup>와 함께 후에 土地制度史 및 農業技術史에 관한 研究<sup>(13)</sup>를 하였다. 특히 이나마 스테르네크(Karl Theodor von Inama Sternegg)는 中世農制에 관한 연구라든가 農業史를 中心으로 한 광범한 史料의 系統的 研究를 하였으며 1879년에는 광범한 史料를 批判的으로 利用하여 「經濟史」라는 主題가 붙은 最初의 著書『獨逸經濟史』<sup>(14)</sup>를 叙述하였다. 이 著書는 中世全般의 植民, 農業, 商工業 交通, 貨幣, 莊園制의 成立, 發達, 崩壞, 都市의 發達, 社會階級 등 독일 國民經濟의 發達 全般를 對象으로 한 포괄적인 것이었다. 莊園制에 관한 古典學說은 이렇게 해서 形成된 것이다. 豊富한 史料에 依據해서 叙述된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의 『中世獨逸의 經濟生活』<sup>(15)</sup>은 概說書이면서 個別研究였으며 독일 古典學說을 代表하는 大作이었다. 그리고 1887년에는 크나프(Georg Friedrich Knapp)에 의해서 普러시아 農民解放에 관한 古典的 研究<sup>(16)</sup>가

(9) Georg Ludwig von Maurer, *Geschichte der Fronhöfe, der Bauernhöfe und der Hofverfassung in Deutschland*, 4 Bde, 1862~63.

(10) Maurer, *Geschichte der Städteverfassung in Deutschland*, 4 Bde, 1869~71.

(11) Maurer, *Einleitung der Geschichte der Mark-, Hof-, Dorf- und Stadtverfassung und der öffentlichen Gewalt*, München, 1852.

(12) Georg Hansen, *Die Aufhebung der Leibeigenschaft und die Umgestaltung der gutsherrlich-bäuerlichen Verhältnisse überhaupt in den Herzogtümern Schleswig-Holstein*, St. Petersburg, 1861

(13) Hansen, *Agrarhistorische Abhandlungen*, 2Bde, Leipzig, 1880~84.

(14) Karl T. von Inama Sternegg,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in den letzten Jahrhunderten des Mittelalters*, 4 Bde, Leipzig, 1879~1901.

(15) Karl Lamprecht, *Deutsches Wirtschaftsleben in Mittelalter, Untersuchungen über Entwicklung der Materiellen Kultur des platten Landes auf Grund der Quellen zunächst des Mosellands*, 3 Bde, Leipzig, 1885~86.

(16) G.F. Knapp, *Die Bauernbefreiung und der Ursprung der Landarbeiten in den älteren Theilen Preußens*, Leipzig, 1887.

나오고 그것은 「크나프學派」(C.J. Fuchs, W. Wittich, C. Grünberg 등)에 의한 독일各地域의 農業史研究의 理論的 支柱가 되었다. 한편 1896年 에렌베르크(Richard Ehrenberg)의 『후거家の 時代』<sup>(17)</sup>는 近代初期의 財政·金融 및 企業史研究에 관한 開拓者的 研究였다.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先驅的·古典的 諸研究에 뒤이어 19世紀末~20世紀初에 많은 研究가 進展되어 經濟史研究은 理論的·實證的으로 深化되었다.

프랑스에서 經濟史를 近代學問으로 確立시킨 것은 「프랑스에서의 近代經濟史學의 創立者」(Claude Fohlen)라고 말해지는 루바쓰르(Emile Levasseur)였다. 그의 1854年의 處女作 『로政策의 歷史的 研究』<sup>(18)</sup>는 존 로(John Law)의 政策體系를 歷史的으로 金融, 財政, 投機, 政治的 諸則面에서 包括的으로 研究한 業績이었다. 뒤이어 1859年에 그는 『프랑스 勞動階級史』<sup>(19)</sup> 第1卷을 出版하였다. 이 두 卷의 著書는 프랑스 社會經濟史의 劃期的인 業績이었다. 그후 그는 經濟史研究에서 統計學利用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그러한 方法을 써서 『프랑스 人口論』<sup>(20)</sup>을 敘述하였다. 그의 마지막 著書 『프랑스 商業史』<sup>(21)</sup>는 갈리아時代에서 20世紀初에 이르기까지의 國內商業 및 外國貿易을 다룬 프랑스 商業通史였다. 그는 독일 歷史學派 특히 로셔(Wilhelm Roscher)의 영향을 받은 經濟學者였고 地理學者, 統計學者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經濟史家였다. 그는 經濟史를 文明史의 一部門으로 보고 그것이 야말로 經濟學을 抽象化에서 오는 誤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 하여 實證을 重視했으며 經濟史와 經濟學·地理學·統計學·社會學 등 餘他 諸學問分野와의 關係를 重視하였다.

그와 같은 世代이며 平生을 社會의 起源·進化·變化의 研究에 바친 휴스텔 드 푸랑쥬(Numa Denis Fustel de Coulange)는 古代 및 中世初期의 社會經濟史研究를 통해서 初期 프랑스에서의 經濟史學의 發達에 공헌하였다. 1864年의 名著 『古代都市』<sup>(22)</sup>는 古代希臘 및 로마 諸都市의 발달과 宗教의 關係를 解明한 것이었으며 1875年 以後에는 로마支配에서 카롤링王朝의 成立에 이르기까지의 歷史를 社會構造의 形成이라는 觀點에서 敘述한 古典的 大著 『古代프랑스 政治制度史』<sup>(23)</sup> (全 6 卷)를 出版하였다. 그의 제 4 권은 古代프랑스 土地制度의 問題를 그리고 그의 第 5 卷은 프랑스 封建制起源의 問題를 다룬 것이며 그는

(17) Richard Ehrenberg, Das Zeitalter der Fugger: Geldkapital und Kreditverkehr im 16. Jahrhundert, 2 Bde, Jena, 1896.

(18) Emile Levasseur, Recherches historiques sur le système de Law, Paris, 1854.

(19) Levasseur, Histoire des Classes ouvrières et de l'industrie en France avant 1789, 2 Vols, Paris, 1900~01.

(20) Levasseur, La Population française, 3 Vols, 1889~92.

(21) Levasseur, Histoire du Commerce de la France, 2 Vols, Paris, 1811~02.

(22) Numa Denis Fustel de Coulange, La cité antique, 1864.

(23) Fustel de Coulange, Histoire des institutions politiques de l'ancienne France, 6 Vols, Paris, 1875~92.



로마學派(Romanist)로서 프랑스 封建制·莊園制의 게르만起源說을 否定하고 로마起源說을 主張하였다. 그의 經濟史方法은 史料를 엄정하게 觀察하고 그것에 의해서 諸事實間의 論理的 聯關性=法則을 發見하고 論理的으로 整理된 形態로 歷史展開를 追求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初期에는 史料를 無批判的으로 利用했으나 1885년의 古代末~中世初 유럽의 土地制度에 관한 論文集<sup>(24)</sup>부터는 史料를 철저히 考察 批判하였다.

英國의 初期의 經濟史家들의 研究에는 예를 들어 쾨닝검(William Cunningham)과 에슬리(Sir William James Ashley)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歷史學派의 影響을 볼 수 있다. 그러나 英國은 經驗論的 傳統 속에서 事實認識에의 傾向이 강하였으며 過度한 一般化를 피하였다. 그리고 研究主題도 商工業에 관한 것이 많았다.

英國에서도 經濟史의 研究은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1830年代에는 이미 베인즈(Edward Baines)의 綿工業史,<sup>(25)</sup> 매컬록(J.R. McCulloch)의 商業史,<sup>(26)</sup> 투크(Thomas Tooke)의 物價史<sup>(27)</sup>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英國에서 最初의 중요한 經濟史의 著作은 1866~1902년에 걸쳐 出版된 로저스(James Edwin Thorold Rogers)의 『英國農業 및 物價史』<sup>(28)</sup>(全 7 卷)였다. 이 책은 1259~1793년의 物價 및 賃金의 歷史를 中心으로 한 방대한 研究로서 오늘날 英國의 社會經濟史學의 起點을 이루는 開拓者의 古典的 勞作이다. 自由主義者인 著者는 本著에서 物價의 움직임을 中心으로 한 社會經濟의 變化와 함께 勞働者의 社會經濟的 地位의 推移를 究明하려고 하였다. 이 研究成果를 기초로 그는 1889년에 13~19世紀 前半期의 勞働者階級의 歷史에 관한 研究成果<sup>(29)</sup>를 出版하였다. 農業-土地制度에 관해서는 씨봄(Frederic Seebohm)의 『村落共同體』<sup>(30)</sup>(1883年)와 비노그라도프(Paul Vinogradoff)의 『英國隸農制』<sup>(31)</sup>(1892年) 및 『莊園의 發達』<sup>(32)</sup>(1905年) 등이 刊行되었다. 前者는 로마學派의 立場에서, 그리고 後者는 게르만學派(Germanist)의 立場에서 英國莊園에 관한 古典學說을 樹立한 古典的인 研究業績들이다. 한편 法制史家 메이트랜드(F.W. Maitland)

(24) Fustel de Coulange, Recherches sur quelques problèmes d'histoire, Paris, 1885.

(25) Edward Baines, History of the Cotton Manufacture in Great Britain, London, 1835.

(26) J.R. McCulloch, A Treatise on the Principles, Practice and History of Commerce, 1831.

(27) Thomas Tooke, A History of Prices and of the State of the Circulation from 1783~1847, 6 Vols, 1838~56.

(28) James Edwin Thorold Rogers, A History of Agriculture and Prices in England, 7 Vols, Oxford, 1866~1902.

(29) Rogers, Six Centuries of Work and Wages: The History of English Labour, London, 1889.

(30) F. Seebohm, The English Village Community Examined in Its Relations to the Manorial and Tribal System and to the Common or Open Field System of Huslndry, Cambridge, 1883.

(31) P. Vinogradoff, Village in England, Oxford, 1892.

(32) Vinogradoff, The Growth of the Manor, London, 1907.

의 研究<sup>(33)</sup>도 初期의 古典的 業績이었다.

한편 産業革命에 관한 先驅的 研究<sup>(34)</sup>를 하고 후의 産業革命研究의 起點을 만든 사람은 토인비(A. Toynbee)였다. 그는 1760~1830년의 英國의 工業技術上의 變化와 그에 따르는 社會經濟의 急激한 變化를 「産業革命」이라고 認識하고 그의 社會的 結果에 대해서는 悲觀論을 主張하였다. 그의 産業革命論은 후에 해몬드夫妻(J.L. and B. Hammond)를 통해서 더욱 普及되어 「古典學說」로 確立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産業革命研究에 커다란 刺戟을 주고 있다.<sup>(35)</sup> 토인비에 이어 初期의 産業革命研究에 크게 기여한 것은 프랑스의 망투(P. Mantoux)<sup>(36)</sup>였다.

독일 歷史學派의 영향을 받은 쾨닝검은 1882년에 『英國商工業의 發達』<sup>(37)</sup>을 刊行했으며 그것은 版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研究成果를 吸收, 改訂 擴大되어 1896~1903년의 第3版에서는 全3卷으로 되어 20世紀初의 英國經濟史의 水準을 代表하는 通史로 널리 普及되었다. 한편 에슐리는 1887년에 『英國毛織物工業史』<sup>(38)</sup>를 叙述하였으며 1888~1911년에는 英國經濟史 研究의 礎石을 놓은 代表作 『英國經濟史 및 學說』<sup>(39)</sup>을 著述했으며 1914년에는 英國經濟史의 간편한 概說著로서 오늘날에도 읽혀지고 있는 『英國의 經濟組織』<sup>(40)</sup>을 叙述하였다. 그는 하버드大學에 초빙되어 1892년에 經濟史講座를 擔當한 最初의 教授가 되었다. 한편 웨브夫妻(Sidney and Beatrice Webb)는 『勞動組合史』<sup>(41)</sup>를 叙述하였다.

美國에서의 經濟史研究도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비숍(J.L. Bishop)은 史料의 價値가 큰 매우 包括的인 『美國工業史』<sup>(42)</sup>를 著述했으며 1880年代에 들어서는 타우시크(F.W. Taussig)의 古典的 名著 『美國關稅史』<sup>(43)</sup>(1888年)가 出版되었다. 터너(F.J. Turner)의 劃期

(33) F.W. Maitland, *Domesday and Beyond*, Cambridge, 1897.

(34) A. Toynbee,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 Popular Addresses, Notes and Other Fragments*, ed. by C.M. Toynbee, London, 1884.

(35) 金宗炫, 『英國産業革命研究』, 1977年 參照.

(36) Paul Mantoux, *La Revolution industrielle au xviii siecle: essai sur les commencement de la grande industrie moderne en Angleterre*, Paris, 1906. 이 책은 1928년에 英譯되었다.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8th Century: An Outline of the Beginnings of the Modern Factory System in England*, trans. by M. Vernon, London, 1928).

(37) William Cunningham, *The Growth of English Industry and Commerce*, Cambridge, 1882.

(38) Sir William James Ashley, *History of the Woolen Industry in England from the 14th to the 18th Century*, 1887.

(39) Ashley, *An Introduction to English Economic History and Theory*, Part I & II, London, 1888~1911.

(40) Ashley,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ngland: An Outline History*, 1914.

(41) Sidney and Beatrice Webb, *The History of Trade Unionism*, London, 1849.

(42) J.L. Bishop, *History of American Manufactures from 1608~1860*, 2 Vols., Phil., 1864.

(43) F.W. Taussig, *Tariff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Y., 1884.

的 論文「美國史에서의 프론티어의 意義」<sup>(44)</sup>(1893年)는 후에 그의 論文集『美國史에 있어서의 프론티어』<sup>(45)</sup>(1920年)에 收錄되었지만 프론티어가 社會關係의 矯正者로서 工業勞動의 社會的 不滿의 安全瓣로서 그리고 自由의 보루로서 美國史에서 重要的 役割을 하였다는 터너 命題는 「터너學派」를 形成하고 美國史研究에 큰 影響을 주었다.

하버드大學에 뒤이어 1902년에는 예일(Yale)大學에서 經濟史講座가 開設되고 데이(Clive Day)가 그것을 擔當하였다. 商業史를 研究하고 있던 그는 1942년에는 유럽 近代經濟發展에 관한 概說書<sup>(46)</sup>를 出版하였다. 보가트(Ernest C. Bogart)는 1907년에 美國 最初의 『美國經濟史』<sup>(47)</sup>와 1942년에는 『近代유럽經濟史』<sup>(48)</sup>를 著述하였다. 1913년에는 合衆國憲法の 成立過程의 階級的 基盤을 憲法制定에 參與한 사람들의 經濟的 基盤의 分析을 통해서 밝힌 Beard(Charles A. Beard)의 劃期的 研究<sup>(49)</sup>가 나옴으로써 그것은 美國에서의 歷史的 經濟的 解釋의 先驅를 이루었다. 1915년에는 존슨(Emory R. Johnson)을 中心으로 해서 國內商業 및 外國貿易에 관한 包括的인 방대한 通史<sup>(50)</sup>가 出版되었다.

### III. 20世紀 前半期에 있어서의 經濟史學의 發達

#### 1. 특 일

20世紀에 들어서 독일에서는 方法論上의 論議가 활발하게 展開되고 그것은 특히 쾰마르트와 베버에 의해서 深化되었다. 그것은 進展되는 歷史研究에 의해서 이루어진 無數한 個別的 認識을 組織化하려는 努力의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論議에 重要的 자극을 준 것은 딜타이(Wilhelm Dilthey), 리케르트(Rickert) 및 빈델반트(Windelband)의 精神諸科學이었다. 이들의 方法은 自然科學者의 因果關係에 의한 인식에 대신해서 事實關係의 本質을 理解에 의해서 인식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方法上의 도움으로 쾰마르트와 베버는 전혀 새로운 諸關聯을 歷史事象의 多樣性 속에서 洞察할 수가 있었으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일정한 經濟形態라든가 經濟制度 속에서 나타난 精神을 分析함으로써 슈몰러라든가 부허의 經濟發展

(44) F.J. Turner,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The Proceedings of the State Historical Society of Wisconsin, December 1893.

(45) Turner,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N.Y., 1920.

(46) Clive Day, Economic Development in Europe, N.Y., 1942.

(47) Ernest C. Bogart,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Y., 1907.

(48) Bogart, Economic History of Europe 1760~1939, 1942.

(49) Charles A. Beard,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N.Y., 1913.

(50) Emory R. Johnson, History of Domestic and Foreign Commerce of the U.S., 2 Vols, Washington, 1915.

段階論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前進된 論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쾨바르트는 理論과 歷史의 綜合을 가지고 經濟學의 完成으로 생각하고 資本主義의 發達이라는 視角에서 多樣한 歷史事象에 意味를 부여하려는 歷史敘述을 試圖하였다. 그는 主著『近代資本主義』<sup>(51)</sup>에서 「經濟體制」와 그에 適應하는 經濟樣態가 支配의이었던 歷史時期로서의 「經濟時代」라는 概念으로 中世初期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의 自給自足經濟, 手工業經濟, 資本主義經濟라는 세 개의 支配의 經濟體制를 인식하였다. 그에 의하면 資本主義는 職業的으로 分化되고 市場의으로 聯關되는 個別經濟에 의해서 構成되는 流通經濟的 組織이며 거기서는 經濟主體로서의 生産手段의 所有者와 經濟客體로서의 無產勞動者가 市場關係에서 協同하고 그 支配的 經濟原理는 營利主義와 經濟的 合理主義였다. 쾨바르트는 慾求充足主義와 傳統主義에 代身해서 營利主義와 經濟的 合理主義의 支配가 擴大되는 過程이 資本主義의 發達過程이며 이 原理의 根源이 된 企業精神과 市民精神이 結合된 것이 資本主義精神이고 그것이 資本主義를 創造했다고 보았다. 그는 資本主義를 「初期資本主義」, 「高度資本主義」, 「後期資本主義」로 區分했으며 그후의 論議에 많은 影響을 끼쳤다. 또한 쾨바르트는 『유대인과 經濟生活』<sup>(52)</sup> (1911年), 『奢侈와 資本主義』<sup>(53)</sup> (1912年), 『부르조아』<sup>(54)</sup> (1913年) 등을 통해서 近代資本主義發達의 諸側面을 考察하였다. 그 외에도 쾨바르트는 1930년에 『세계의 經濟』<sup>(55)</sup>를 出版해서 自身の 經濟理論, 經濟學史, 經濟史의 諸研究를 方法論的으로 總括하고 獨自의인 「理解의 經濟學」을 提示해서 理論과 歷史의 統合을 試圖하였다.

막스 베버는 沒價値性, 理念型 및 理解的 方法을 主內容으로 하는 社會科學方法論을 土臺로 해서 社會經濟史를 研究하고 쾨바르트보다 강한 자극을 주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sup>(56)</sup> (1904年)에서 西유럽에서 近代資本主義發達을 推進한 에토스와 禁慾的 프로테스탄티즘의 宗教倫理와의 사이에 存在하는 內面的 聯關을 論證하였으며 이와 같은 베버命題는 事實上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無數한 論爭<sup>(57)</sup>을 喚起시킴

(51)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3 Bde, 1916~27.

(52) Sombart, Die Juden und das Wirtschaftsleben, Leipzig, 1911.

(53) Sombart, Luxus und Kapitalismus, München und Leipzig, 1912.

(54) Sombart, Der Bourgeois: Zur Geistesgeschichte des modernen Wirtschaftsmenschen, München und Leipzig, 1913.

(55) Sombart, Die drei Nationalökonomie, Geschichte und System der Lehre von der Wirtschaft, München und Leipzig, 1930.

(56)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e xx und xxi, 1804~05. 權世元·姜命圭 共譯,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1958

(57) Robert W. Green (ed.),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Boston, 1959; K. Samuelsson, Religion and Economic Action, London, 1961.

로써 學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후 그는 中世로부터의 發展과의 關聯에서 近代資本主義가 유독 西유럽에서 發生한 理由와 近代유럽의 合理主義의 本質을 追求하는 學問的 關心에서 광범한 比較研究를 하였다. 그의 『古代的 農業事情』<sup>(58)</sup> (1909年)은 유럽 古代社會를 오리엔트와 西洋과의 差異를 暗示하면서도 그의 地理的 歷史的 諸條件 및 制約下에서 하나의 發展 循環이 完結되는 歷史라고 認識하고 中世를 포함한 近代 유럽社會의 發展과의 對比에서 認識하고 있으며 『世界諸宗教의 經濟倫理』<sup>(59)</sup> (1915~18年)에서 古代 유대教, 힌두教, 儒教, 道敎 등과 그들의 社會經濟와의 關係를 分析하여 東西文化를 比較하였다. 遺稿에 의해서 편집된 『經濟와 社會』<sup>(60)</sup>는 經濟生活과 社會秩序 및 支配의 諸形態를 世界史的 次元에서 社會學的으로 綜合한 것으로서 經濟史研究에서도 理論的인 示唆을 주는 것이다. 『一般社會經濟史』<sup>(61)</sup> (1923年)는 그의 社會理論에 의거해서 近代資本主義發展의 前提諸條件과 展開過程에 초점을 맞추어 世界史的 시야에서 經濟史를 類型的으로 考察한 것이다. 이 著書에서 그는 「理念型」의 概念構成을 驅使해서 「古典古代」 및 「東洋」과는 일단 다른 것으로서의 西洋의 中世 및 近代를 近代資本主義를 낳은 特定한 곳으로 連續的 統一的으로 認識하고 있다.

벨로우(Georg von Below)도 이 時期의 社會經濟史研究에 공헌한 사람이었다. 그는 웨버와 함께 「理念型」으로서 經濟發展段階를 認定하려고 하고 經濟學的 範疇를 통한 史料의 概念的 組織的 理解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었다. 그러나 經濟理論으로부터의 先驗的 構成 이라든가 類推를 배격하고 또한 社會經濟史가 自然科學的 法則에 따라 發展한다고 하는 實證主義的 歷史觀에도 批判的이었다. 個人의 人格이라든가 國家의 政治的 發展을 重視하는 理想主義的 史觀 위에서 그는 經濟史의 方法으로서 歷史的 方法만이 決定的인 것이며 認識의 方法은 史料 그 自體에서 文獻學的 史料批判的 訓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독일 中世商人에 관한 연구<sup>(62)</sup>와 初期의 農業史的 研究 및 莊園法에 관한 論爭으로부터 나타난 研究를 포함한 『領邦과 都市』<sup>(63)</sup>를 1900년에 그리고 1914년에는 主著 『中

(58) Max Weber, Agrarverhältnisse im Altertum, in Handwörterbuch der Staatswissenschaften, 3 Aufl., 1909.

(59) Weber, "Wirtschaftsethik der Weltreligionen," i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3 Bde, 1920.

(60)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Grundriß der Sozialökonomie, 3 Abteilung, Tübingen, 1921.

(61) Weber, Wirtschaftsgeschichte, Abriß der universalen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aus den nachgelassenen Vorlesungen, München und Leipzig, 1923.

(62) Georg von Below, "Großhändler und Kleinhändler in deutschen Mittelalter,"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III, 1900.

(93) Below, Territorium und Stadt: Aufsätze zur deutschen Verfassungs- Verwaltungs- und Wirtschaftsgeschichte, München und Leipzig, 1900.

世獨逸國家論』<sup>(64)</sup>을 刊行하고 1920년에는 『經濟史의 諸問題』<sup>(65)</sup>에서 方法論上의 諸問題를 提起하였다. 쾨츠크(Rudolf Kötzschke)는 독일 中世農業史와 植民史를 中心으로 研究하였다. 특히 그가 1901년에 발표한 베르덴(Werden)莊園에 관한 研究<sup>(66)</sup>는 典型的 古典莊園에 관한 研究의 代表作이었다. 그는 1908년에 17世紀에 이르기까지의 獨逸經濟史의 概說書<sup>(67)</sup>와 1924년에는 유럽 中世經濟史의 權威있는 概說書<sup>(68)</sup>를 叙述하였다.

스트리더(Jakob Strieder)는 1904년의 著書 『近代資本主義起源論』<sup>(69)</sup>에서 15~16世紀의 都市에서의 資本蓄積이 地代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쾨바르트의 說을 實證的으로 批判하고 그것이 오랜 期間에 걸친 手工業을 基盤으로 하는 遠隔地商業의 利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立證하였다. 또한 그는 『資本主義의 企業形態의 史的 研究』<sup>(70)</sup>를 통해서 鑛山業이 初期資本主義發展에 미친 큰 영향, 中世의 經濟觀의 붕괴와 資本主義精神의 勃興, 그리고 獨占·株式會社 등 資本主義의 企業形態의 展開를 論하였다.

독일 歷史學派 속에서 나타난 쿨리셔(Josef Kulischer)는 러시아인이면서 처음에는 1908년에 西洋中世의 商品·貨幣去來에 관한 研究<sup>(71)</sup>를 비롯하여 西유럽의 商工業에 관한 研究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러시아革命以後에는 러시아經濟史研究에 專念하여 全2卷으로 된 『러시아國民經濟史』<sup>(72)</sup>(1925年)를 出版하는 한편 1928~9년에는 그때까지의 實證的 研究成果와 一般의 研究水準을 要約하며 全2卷으로 된 『一般經濟史』<sup>(73)</sup>를 出版하였다. 이 책은 概說書로서만이 아니라 專門研究를 위한 參考書로서도 有用하게 利用될 수 있는 것이었다.

實證的 方法에 의해서 論爭形式으로 특히 經濟發展段階論에 대해 徹底한 批判을 가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經濟史家 돉슈(Alfons Dopsch)였다. 全2卷으로 된 『카로링時代의 經濟發

(64) Below, Der deutsche Staat des Mittelalters, 1914.

(65) Below, Problems der Wirtschaftsgeschichte. Eine Einführung in das Studium der Wirtschaftsgeschichte, Tübingen, 1920.

(66) Rudolf Kötzschke, Studien zur Verwaltungsgeschichte der Großgrundherrschaft Werden an der Ruhr im Mittelalter, Leipzig, 1901.

(67) Kötzschke, Grundzüge der deutschen Wirtschaftsgeschichte bis zum 17. Jahrhundert, Leipzig, 1908.

(68) Kötzschke, Allgemeine Wirtschaftsgeschichte des Mittelalters, Jena, 1924.

(69) Jakob Strieder, Zur Genesis des modernen Kapitalismus: Forschungen zur Entstehung der großen bürgerlichen Kapitalvermögen am Ausgange des Mittelalters und zur Beginn der Neuzeit, Augsburg, 1904.

(70) Strieder, Studien zur Gesichte kapitalistischer Organisationsformen: Monopole, Kartelle und Aktiengesellschaften im Mittelalter und zu Beginn der Neuzeit, München und Leipzig, 1914.

(71) J. Kulischer, "Warenhändler und Geldausleiher im Mittelalter,"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Sozialpolitik und Verwaltung, XVII, 1908.

(72) Kulischer, Russische Wirtschaftsgeschichte, Jena, 1925.

(73) Kulischer, Allgemeine Wirtschaftsgeschichte des Mittelalters und der Neuzeit, 2 Bde, München, 1929.

展』<sup>(74)</sup>(1912~13年)은 第1卷에서 古典의 通說의 成立事情, 各種史料의 存在形態와 그 利用價値 및 莊園을 中心으로 한 農業制度를 論하고 第2卷에서는 當時의 經濟發展의 樣式과 流通經濟部門 즉 都市, 商工業, 貨幣制를 考察하여 既存의 諸學說을 철저하게 批判하였다. 뒤 이어 1918년에는 그의 主著『유럽文化發展의 經濟的 및 社會的 諸基礎』<sup>(75)</sup>의 第1卷 그리고 1920년에 第2卷이 刊行되었다. 이 著書는 게르만 民族이 民族大移動을 거쳐 어떻게 로마 社會와 접촉 融合하면서 새로운 社會秩序를 創造했는가를 精密하고 包括적으로 論한 社會經濟史의 傑作이며 그 結果 從來의 「中世暗黑說」 및 게르만人에 의한 「文化斷絶說」이 批判되고 「文化連續說」이 積極적으로 立證되었다. 그리고 古代게르만社會의 自由平等社會說과 古典莊園學說 등의 舊說이 根本적으로 批判되었다. 그는 記述史料만이 아니라 考古學을 비롯한 歷史補助諸學問의 成果를 흡수하여 傍證에 利用하면서 그후의 歷史補助學의 利用에 先例를 만들었다. 그는 人間生活의 多面性과 連續性을 強調하였다. 1930년에 그는 自然經濟→貨幣經濟라는 歷史學派의 發展段階論에 대한 體系的 批判을 한 『世界史에 있어서의 自然經濟와 貨幣經濟』<sup>(76)</sup>를 서술하였다.

都市財政 및 商工業 등을 中心으로 한 이테리 經濟史家로서 有名한 지베킹(Heinrich Sieveking)은 近代유럽諸國의 經濟發展에 관한 研究<sup>(77)</sup>와 近代를 中心으로 한 유럽經濟史인 『經濟史』<sup>(78)</sup>를 出版하였다.

독일의 뛰어난 中世經濟史家 마이어(Theodor Mayer)는 1928년에 中世와 近代로 된 全2卷의 『獨逸經濟史』<sup>(79)</sup>를 出版했으며 이벨(Wilhelm Abel)은 農產物價格과 勞賃의 變動을 통한 中世末期의 農業狀態를 解명한 研究<sup>(80)</sup>와 中世末 「廢村」의 研究<sup>(81)</sup>를 하였다. 특히 1930年代 이후 農業史 및 土地制度史 특히 莊園制研究에서 큰 기여를 한 것은 뤼트게(Friedrich Lütge)였다. 그는 領主制를 中心으로 해서 中部獨逸에서의 中世初期 農業制度의 研究<sup>(82)</sup>를

(74) Alfons Dopsch, Die Wirtschaftsentwicklung der Karolingerzeit vornehmlich in Deutschland, 2 Bde, Weimar, 1812~13.

(75) Dopsch, Wirtschaftliche und sozial Grundlagen der europäischen Kulturentwicklung aus der Zeit von Caesar bis auf Karl den Großen, 2 Bde, Wien, 1928~20 (The Economic and Social Foundation of European Civilization, Condensed English translation by M.G. Beard and Nadie Marshall, London, 1937).

(76) Dopsch, Naturwirtschaft und Geldwirtschaft in der Weltgeschichte, Wien, 1930.

(77) Heinrich Sieveking, Grundzüge der neueren Wirtschaftsgeschichte vom 17.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Leipzig, 1915.

(78) Sieveking, Wirtschaftsgeschichte, Berlin, 1935.

(79) Theodor Mayer,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2 Bde, Leipzig, 1928.

(80) Wilhelm Abel, Agrarkrisen und Agrarkonjunktur in Mitteleuropa vom 13. bis zum 19. Jahrhundert, Berlin, 1935.

(81) Abel, Die Wüstungen des ausgehenden Mittelalters, Stuttgart, 1943.

(82) Friedrich Lütge, Die Agrarverfassung des frühen Mittelalters in mitteleutschen Raum

했으며 1949년에는 16~18世紀의 바이에른地方의 農業·土地制度에 관한 研究業績<sup>(83)</sup>을 내고 이러한 研究의 集積을 土臺로 해서 1952년에는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를 다룬 綜合的이고 標準的인 概說書『獨逸社會經濟史』<sup>(84)</sup>를 敘述하였다. 그는 그동안에 發表한 論文을 모아 1963년에는 『社會經濟史研究』<sup>(85)</sup>를 出版하였다.

한편 호프만(Walter G. Hoffmann)<sup>(86)</sup>은 經濟學者·統計學者이면서 豊富한 統計資料를 기초로 統計의 實證的 分析을 통해서 工業化過程을 段階的으로 認識하여 第2次大戰後에 크게 進展되는 經濟理論에 기반을 둔 數量的 分析의 先驅가 되었다. 스웨덴의 經濟學者 헤셔(Eli F. Heckscher)도 理論과 統計資料를 重視했으며 그의 主著『重商主義』<sup>(87)</sup>는 經濟政策史 및 社會·經濟思想史分野의 包括的 勞作이며 그 속에서 그는 重商主義를 統一體制, 國力體制, 保護體制, 貨幣體制 등 諸側面에서 考察하였다.

## 2. 프랑스

휴스텔 드 꾸랑쥬(Fustel de Coulange)의 뒤를 이어 프랑스의 經濟史學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그의 門下生인 세(Henri Sée)였다. 先學으로부터 엄밀하고 客觀的인 歷史科學의 意識을 體得한 세는 1890年代에 특히 豊富한 史料를 利用해서 브레타뉴(Bretagne)地方의 中世·近代의 農民階級 및 經濟狀態에 관한 特殊研究를 發表했으며 1901년에는 中世社會經濟史의 古典의 名著라고 하는 『中世프랑스의 農民階級과 莊園』<sup>(88)</sup>을 出版하였다. 특히 1920年代에 세는 18~19世紀의 政治, 農業制度, 商工業, 社會階級, 經濟生活, 近代資本主義 起源 등 광범한 分野에 걸친 勞作들을 뒤를 이어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近代資本主義의 起源』<sup>(89)</sup>은 商業資本→先貸制商業資本→產業資本이라는 圖式에서 풍부한 史料를 驅使하면서 比較的으로 中世西洋諸國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發展過程을 밝혔다. 한편 『프랑스社會經濟史概說』<sup>(90)</sup>은 풍부한 史料에 依據하면서 古代에서 第1次大戰에 이르기까지의 農工商 등

vornehmliche in der Karolingerzeit, Jena, 1937.

(83) Lütge, Die bayerische Grundherrschaft: Untersuchungen über die Agrarverfassung Altbayerns in 16.~18. Jahrhundert, Stuttgart, 1949.

(84) Lütge, Deutsche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Ein Überblick, Berlin, Göttingen und Heidelberg, 1952.

(85) Lütge, Studien zur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Gesammelte Abhandlungen, 1963.

(86) Walter G. Hoffmann, Studien und Typen der Industrialisierung, ein Beitrag zur quantitativen Analyse historischer Wirtschaftsprozesse, 1931. Wachstum und Wachstumsformen der englischen Industriewirtschaft von 1700 bis zur Gegenwart, 1940.

(87) Eli F. Heckscher, Merkantismen, 2 Vols, Stockholm, 1931.

(88) Henri Sée, Les Classes rurales et le régime domanial en France au moyen âge, Paris, 1901.

(89) Sée, Les Origines du capitalisme moderne, Armand Colin, 1926.

(90) Sée, Esquisse d'une 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et la France depuis les origines jusqu'à la guerre mondiale, Paris, 1929.



프랑스經濟全般에 걸친 主要問題를 考察한 것이다. 그는 獨文으로 1930~31년에 『프랑스經濟史』<sup>(91)</sup>(全 2卷)를 내었으나 후에 그것을 修正하여 『프랑스經濟史』<sup>(92)</sup>를 出版하였다. 本著는 프랑스 社會經濟史의 代表的인 通史로서 가장 重要한 文獻의 하나이다. 그의 歷史理論은 『唯物史觀과 歷史의 經濟的 說明』<sup>(93)</sup>(1927年)과 『歷史科學과 歷史哲學』<sup>(94)</sup>(1928年) 등에서 展開되었다. 彼は 마르크스的인 歷史의 經濟的 解釋에 理解를 보이면서도 經濟的 決定論을 배제하고 여러가지 現象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歷史의 複雜性이 形成된다고 보았다. 彼は 歷史學이 科學이면서도 自然科學과는 다른 것으로서 諸事象의 聯關이라든가 發展의 諸傾向·諸條件을 認識하고 事實의 變化를 說明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比較方法을 重視하였다.

프랑스語國 및 프랑스文化界에 속하는 벨기에의 史家 피렌느(Henri Pirenne)는 벨기에國民史는 물론 유럽 中世社會經濟史分野에서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 그는 파리에 뒤이어 독일에 留學하며 슈몰러(Gustav von Schmoller)라든가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學問的 관심이 全유럽의인 것으로 擴大되면서 프러시아의·독일의 生活感情과 思考方式에 批判的이 되고 프랑스學會와 보다 緊密한 關係를 갖게 되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벨기에史家였고 그의 필생의 大著 『벨기에史』<sup>(95)</sup>(全7卷, 1900~32年)는 社會的 經濟的 및 政治的 諸側面을 綜合한 雄大한 著作이다. 그러나 그는 單純히 벨기에의 國民史家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유럽經濟史學界에 크게 기여한 것은 都市와 商工業의 研究를 통한 全유럽의 規模에서의 社會經濟史의 獨特한 構成에 있었다. 이 分野에서 그는 重要한 個別的 研究 및 史料刊行을 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1929年 『中世都市』<sup>(96)</sup>에서 有名한 「商業의 復活」과 「商人定住」를 基本계기로 하는 中世都市起源說을 주장하였다. 『中世社會經濟史』<sup>(97)</sup>(1933年)는 商工業의 展開를 중심으로 본 中世社會經濟史의 綜合的 解釋이었다. 「商業의 復活」과 遠隔地貿易의 展開를 基本線으로 하는 그의 中世社會經濟史의 解釋은 오늘날에도 많은 影響을 주고 있다. 그는 綜合史로서 『유럽史』를 出版하였고 특히 그의 逝去(1835年) 후에 出版된 『마호멧과 샤를마뉴』<sup>(98)</sup>(1937年)는 유럽社會成立의 問題를 考察한 것이었다.

(91) Sée, *Französische Wirtschaftsgeschichte*, 2 Bde, Jena, 1930~36.

(92) Sée, *Histoire économique de la France*, 2 Vols, Paris, 1939~42.

(93) Sée, *Matérialisme historique et interprétation économique de l'histoire*, 1927.

(94) Sée, *Science et philosophie de l'histoire*, 1928.

(95) Henri Pirenne, *Histoire de Belgique*, 7 Vols, Bruxelles, 1900~32.

(96) Pirenne, *Les Villes du moyen âge: Essai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Bruxelles, 1927.

(97) Pirenne, *Le Mouvement économique et social au moyen âge du XI<sup>e</sup> au milieu du XV<sup>e</sup> siècle*, Paris, 1933.

(98) Pirenne, *Mahomet et Charlemagne*, Paris et Bruxelles, 1937.

거기서 그는 몹슈와 類似한 文化連續성을 主張하면서 古代와 中世의 斷絶을 게르만民族의 移動에 의해서가 아니라 回教徒의 侵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古代의 商業이 衰退하고 農耕中心의 封建體制로 變遷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베렌느는 歷史의 理論的 構成을 피하고 史實에 土臺를 두고 社會經濟史를 綜合的으로 構成한 史家였다.

1920年代 및 1930年代를 中心으로 해서 프랑스經濟史家로서 크게 활약하고 나아가 歷史學에 새로운 轉換의 계기를 만든 것은 블로끄(Marc Bloch)였다. 그는 1937년부터 파리大學의 經濟史教授가 되었으며 많은 論著 中에서도 主著로는 『프랑스農村史의 基本性格』<sup>(99)</sup> (1931年)과 『封建社會』<sup>(100)</sup> (1939~40年)가 있다. 前者는 프랑스農村의 基本性格을 始源에서 近代에 이르기까지 土地占取의 過程, 耕地形態를 통한 農村生活, 領主制와 그 變質, 社會集團, 農業革命의 開始를 통해서 究명한 學界의 最高水準을 나타내는 古典的 名著이며 後者는 無數한 研究와 방대한 史料를 基盤으로 해서 比較史的으로 中世유럽封建社會의 共通類型, 多樣性 및 一般的 發展方向을 究명한 古典的 名著로서 오늘날에도 이 分野의 가장 중요한 基本 文獻의 하나가 되고 있다. 블로끄는 歷史學이 個別의 事實의 特殊專門의 研究에 限定될 것이 아니라 社會를 總體로서 다루고 社會諸分野의 研究成果를 광범히 받아들여 한 時代와 社會의 獨自性을 認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社會經濟史研究는 새로운 歷史學의 基本的 認識手段이었으며 研究方法로서는 比較史의 方法을 強調하였다.<sup>(101)</sup> 이와 같은 블로끄의 歷史認識에는 듀르켄(Emile Durkheim)의 集團社會學의 影響이 컸다. 듀르켄에 있어서는 콩트(Comte) 以來의 實證主義의 思考가 더욱 철저하였다. 듀르켄으로서 實證主義의 認識의 對象이 된 것은 「社會的 事實」이었다. 그것은 記述史料의 媒介없이 直接的인 考察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從來의 記述史料 偏重의 歷史研究에의 批判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政治·外交中心의 事件指向의인 在來의 歷史敘述方法이 공격되었다. 블로끄는 歷史의 表面에 나타나고 있는 個個人보다도 그들을 條件지우고 있는 集團을 重要視하였다. 그는 集團意識을 習性, 風俗 및 法律狀態에 規準을 주는 法廷으로 보는 듀르켄의 集團社會學으로부터 個個人間의 社會化를 導出했으며 그림으로써만이 個人의 特性이라든가 不規則性을 가진 人間은 集團의 存在로서 科學的 認識의 對象이 될 수 있었다. 블로끄는 歷史研究의 最終的 分析에는 人間意識이 있다고 보고 意識이 나타나는 物質的 틀을 強調하였

(99) Marc Bloch, *Les Caractères originaux de l'histoire rurale française*, 2 Vols, Oslo et Paris, 1931.

(100) Bloch, *La société féodale*, 2 Vols, Paris, 1939~40.

(101) Bloch, "Pour une histoire comparée des sociétés Européennes," *Revue de Synthèse Historique*, Déc. 1928 參照.

다. 거기서 블로끄는 集團意識에 力點을 두고 社會的 規範이 反映되는 行動의 具體的인 社會的 樣式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듀르켄의 「社會的 事實」의 概念을 歷史研究의 하나의 道具로 삼았다. 그의 出發點은 史料의 解釋學的 說明이 아니라 過去의 物質的 殘有物에 관한 考古學的 分析에 있었고 具體的인 制度 및 物質的 殘有物 속에서 社會構造가 把握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블로끄의 主要關心은 社會構造의 生成과 衰退에 있었으며 복잡한 社會諸構造의 究明과 敘述에 있었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블로끄는 독일 歷史主義의 影響을 받은 政治的 事件·史料中心의 傳統의 歷史學에 대해서 社會的 集合의 構造的 認識을 위한 社會經濟史研究을 深化시켰다. 이와 같은 基本立場에서 專門誌가 發行되고 그것을 中心으로 研究가 進展되었다. 블로끄는 웨브르(Lucien Febvre)와 共同으로 1929년에 『經濟社會史年報』(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를 創刊하였다. 이에 앞서 1900년에는 베르(Henri Beer)가 創刊한 『綜合史評論』(Revue de synthèse historique)은 듀르켄의 影響을 받은 立場에서 從來의 思辨的 歷史哲學을 批判하고 歷史科學이 理論的=論理的 法則에 의해서 理解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고 分析과 綜合 등에 의한 歷史의 全般的 認識을 指向하고 있었다. 블로끄와 웨브르도 이 雜誌의 編集에 參與하고 있었으므로 「아날」(Annales)도 듀르켄과 베르의 認識方法의 傳統을 계승한 것이었다.

「아날」을 통해서 블로끄와 함께 「아날學派」라고 하는 프랑스 歷史界에 새로운 潮流를 形成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사람은 前述한 웨브르였다. 그에 의하면 人爲的인 實生活에 관계 없는 諸專門領域의 벽을 무너뜨리고 社會的, 經濟的, 社會學的, 政治學的, 哲學的, 生理學的, 美學的 諸觀點에서 많은 部分諸科學에서 이루어진 모든 研究成果를 綜合하고 그래서 歷史적으로 規定된 「人間의 全體」에 到達한다는 것이 「아날」을 特徵지우고 있는 精神이었다. 웨브르는 地理와 歷史의 密接한 關係를 강조하고 그곳에서의 사람들의 生活의 內容과 그 物質的 道德的 文化, 科學, 藝術, 信仰, 商工業, 社會分化和 社會的 集團을 究明할 必要性을 강조하였다. 거기서는 政治的 法的 테두리라든가 軍事的 外交的 事件의 움직임은 關心 밖에 있었다. 그는 各時代와 地域의 生活全體를 다루려고 하였다. 이러한 데서 「아날學派」의 強力한 「全體史」 指向性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1911년의 그의 學位論文<sup>(102)</sup>은 經濟的 政治的 및 社會的 諸側面의 分析을 통해서 16世紀 後半期의 프랑쉬·콩페(Franche-Comté) 地域의 綜合的 把握을 試圖한 것으로서 그의 歷史認識方法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102) Lucien Febvre, Philippe II et la Franche-Comte. Etude. d'histoire politique, religieuse et sociale, Paris, 1911.

한편 1922년에 발로(Ch. Ballot)는 프랑스産業革命에 관한 古典的 業績<sup>(103)</sup>을 刊行하였다. 르페브르(Georges Lefebvre)는 프랑스革命史研究를 主導하였는데 특히 그는 1924년과 1932년에 各各 노르(Nord)地方的 農民層<sup>(104)</sup>과 恐怖政治下의 農業問題<sup>(105)</sup>에 관한 名著를 出版하였으며 『프랑스革命과 農民』<sup>(106)</sup>(1934年)에서 그는 프랑스革命期の 農民運動이 都市의 부르조아運動에 부수된 것이 아니라 固有의 自律性을 가진 農民革命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가 오랫동안 學術誌에 발표했던 貴重한 諸論文은 1954년에 그의 誕生 80年을 記念하는 論文集<sup>(107)</sup>에 收錄되었다. 앙시앙 레짐 末期의 社會經濟構造의 分析에서는 라브로스(C.E. Labrousse)가 큰 役割을 하였다. 그는 大著 『앙시앙 레짐 末期의 프랑스 經濟의 危機』<sup>(108)</sup>에서 統計的 方法으로 價格, 賃金, 地代 및 諸稅를 數量的으로 分析하고 그의 추이가 社會諸階層에 미친 影響을 考察하여 結論적으로 地主와 大借地農이 有利하고 下層分益 小作農, 小農民이 經濟的 壓迫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大革命으로 連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研究는 프랑스에서의 數量的 方法의 先驅가 되었다. 한편 마르크스主義의 立場에서 프랑스革命의 研究를 前進시키는 데 기여한 學者는 소블(Albert Soboul)이었다. 그는 『프랑스革命史』<sup>(109)</sup>를 비롯해서 프랑스革命期の 社會經濟的 諸問題에 관한 많은 論著를 남겼다. 한편 부트루슈(Robert Boutruche)는 14~15世紀의 보르드레農村에 관한 研究<sup>(110)</sup>와 農奴制에 관한 높은 水準의 研究書 『領主制와 封建制』<sup>(111)</sup> 등 諸研究를 통해서 이 分野의 研究에 기여하였다.

### 3. 英 國

先行한 時期의 先驅의인 諸研究의 뒤를 이어 英國經濟史의 研究는 20世紀에 들면서 量・質面에서 커다란 進展을 보였다. 20世紀 初期 英國의 가장 중요한 經濟史家는 언윈(George Unwin)이었다. 그는 自由主義者였으며 그의 經濟史的 관심은 多方面에 걸친 것이었으나 특히 工業組織과 金融 및 貿易分野에서 뛰어난 研究業績들을 남겼다. 名著로 평가되는

(103) Ch. Ballot, L'Introduction du machinisme dans l'industrie française, Lille et Paris, 1922.

(104) Georges Lefebvre, Les paysans du Nord pendant la Révolution, 1924.

(105) Lefebvre, Les questions agraires aux temps de la Terreur, 1932.

(106) Lefebvr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s paysans, Cahier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I, 1934.

(107) Lefebvre, Etudes sur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1954.

(108) C.E. Labrousse, La crise de l'économie française à la fin de l'ancien régime et au début de la Révolution, 2 Vols, Paris, 1944.

(109) Albert Soboul,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9, Paris, 1948

(110) Robert Boutruche, La crise d'une société—Seigneurs et paysans du Bordelais pendant la Guerre de Cent Ans, 1947.

(111) Boutruche, Seigneurie et féodalité, 1959.

1904년의 『16, 17世紀의 産業組織』<sup>(112)</sup>은 中世工匠길드의 變形樣相과 近代初期의 새로운 組織의 生成過程을 밝힌 研究이며 그 속에서 提起된 商業資本 對 産業資本 등의 問題는 近代 産業資本의 社會的 系譜에 관한 研究에 큰 影響을 주었다. 이 책은 『런던의 길드와 組合』<sup>(113)</sup> (1908年)과 함께 都市經濟研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가 中心이 되어 1924年에 共著로 낸 『사뮤엘 울드노우와 아크라이트家』<sup>(114)</sup>는 經營史料에 依據한 經營史의 研究이며 經營의 側面을 통해서 綿工業의 發達을 解明한 重要한 研究이다. 토니(R.H. Tawney)가 편집한 언윈의 論文集 『經濟史研究』<sup>(115)</sup> (1927年)는 언윈의 史觀이라든가 歷史教育에 관한 評論과 함께 學界에 크게 기여한 既發表·未發表 學術論文을 收錄한 것이다. 이들 언윈의 諸研究는 古典의 價値를 가지고 있으며 近代資本主義成立史研究에 必須의인 것들이다. 언윈은 1908年에 에딘버러大學의 經濟史講師가 되었으나 1910年에 맨체스터大學 經濟史教授로 취임함으로써 英國 最初의 經濟史教授의 榮예를 가졌다. 그 뒤에 經濟史教授 자리가 設置된 곳은 런던大學(1921年), 케임브리지大學(1928年), 옥스포드大學(1931年) 등이었다. 한편 노울즈(Lilian C.A. Knowles)는 1921年에 런던大學 最初의 經濟史教授로서 經濟史의 教育에 큰 기여를 했으며 著作活動으로서는 『19世紀의 工業 및 商業發展』<sup>(116)</sup>과 植民地研究의 先驅의 업적인 『英國海外帝國의 經濟發展』<sup>(117)</sup> (1924年) 그리고 19世紀 歐美諸國의 經濟發展에 관한 著作<sup>(118)</sup> 등이 있다.

16世紀를 中心으로 해서 여러 側面에서 劃期的인 研究業績을 발표함으로써 英國經濟史 研究의 進展에 큰 기여를 한 學者는 토니(R.H. Tawney)였다. 그의 次녀작 『16世紀의 農地 問題』<sup>(119)</sup> (1912年)는 土地問題를 中心으로 한 요멘層의 形成과 分解를 중심으로 農業에서 의 資本主義의 발달을 追求한 古典의 名著로서 오늘날에도 높은 學問的 價値를 가지고 있으며, 1941年의 「젠트리의 勃興」<sup>(120)</sup>은 16~17世紀에 있어서의 舊貴族의 沒落과 젠트리(gent-

(112) George Unwin, *Industrial Organiz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Oxford, 1904.

(113) Unwin, *The Gilds and Companies of London*, London, 1908.

(114) George Unwin, A. Hulme, George Taylor, Samuel Oldnow and the Arkwrights, *The Industrial Revolution at Stockport and Marple*, Manchester, 1924.

(115) George Unwin, *Studies in Economic History*, The Collected Papers of George Unwin, ed. by R.H. Tawney, London, 1927.

(116) L.C.A. Knowles,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Development in Great Britain in the 19th Century*, London, 1921.

(117) Knowles, *Economic Development of British Overseas Empire*, London, 1924.

(118) Knowle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th Century*, France, Germany,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London, 1932.

(119) R.H. Tawney, *The Agrarian Problems in the 16th Century*, London, 1912.

(120) Tawney, *The Rise of the Gentry 1558~1640*,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I, 1941 (E.M.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London, 1954에 수록됨).

try)의 興隆을 論한 것으로서 그후 有名한 「젠트리論爭」을 통해서 研究의 進展에 크게 기여한 論文이다. 한편 그는 『宗教와 資本主義의 興隆』<sup>(121)</sup>(1928年)에서 英國史料에 依據해서 資本主義의 에토스에 관한 命題를 批判하고 資本主義의 經濟發展은 宗教改革 以前에 進展되고 있었다고 하여 宗教보다도 資本主義의 發展 그 自體를 重視하고 있다. 한편 그는 共同으로 1914년에는 『經濟史史料集』<sup>(122)</sup>과 1924년에는 『튜더朝 經濟文獻集』<sup>(123)</sup>을 刊行하여 經濟史研究을 위한 基本史料를 提供하였다. 토니의 晩年の 著書 『제임즈1世時代의 實業과 政治』<sup>(124)</sup>는 商人이며 政治家였던 크렌필드를 통한 이 時期의 實業과 政治의 聯關을 考察한 것이다. 토니는 16世紀를 中心으로 英國의 社會經濟史研究에 커다란 기여를 함으로써 16世紀를 「토니의 世紀」<sup>(125)</sup>로 하였고 그의 諸研究는 그후 英國의 近代資本主義의 成立過程의 研究에 必須의인 前提가 되었다. 토니는 1926년에 經濟史學會를 創設하였으며 그 學會誌 『經濟史』(Economic History)는 후의 『經濟史評論』(Economic History Review)으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經濟史學界의 代表的인 研究誌가 되고 있다.<sup>(126)</sup>

파워(Eileen E. Power)는 中世經濟史研究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녀는 『中世英國의 女子修道院』<sup>(127)</sup>(1922年), 『中世에 사는 사람들』<sup>(128)</sup>(1924年), 포스탄(M. Postan)과의 共編著, 『15世紀의 英國貿易』<sup>(129)</sup>(1933年), 中世의 『農民生活와 農村狀態』<sup>(130)</sup>(1932年) 등 귀중한 業績을 남겼다. 또한 그녀는 토니와 함께 1924년에 前述한 『튜더朝 經濟文獻集』을 編集하고 『케임브리지 유럽經濟史』<sup>(131)</sup>의 編集企劃에 參加하였다. 한편 길드社會主義의 創始자이며 勞動黨의 理論의 指導者의 한 사람이었던 콜(G.H.D. Cole)은 『英國勞動運動史』<sup>(132)</sup>를 叙述하였다.

(121)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A Historical Study, London, 1926.

(122) A.E. Bland, P.A.S. Brown, R.H. Tawney (ed.), English Economic History: Selected Documents, London, 1914.

(123) R.H. Tawney, Eileen E. Power (ed.), Tudor Economic Documents, Being Selected Documents Illustrating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udor England, 3 Vols, London, 1924.

(124) R.H. Tawney, Business and Politics under James I: Lionel Cranfield as Merchant and Minister, Cambridge, 1958.

(125) F.J. Fisher, "Tawney's Century," in Essays in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udor and Stuart England in Honour of R.H. Tawney, ed. by F.J. Fish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126) 토니에 관해서는 拙稿 「토니論」(經濟論集 제V권제 2호 1966年) 參照.

(127) E.E. Power, Medieval English Nunneries 1275~1535, London, 1922.

(128) Power, Medieval People, London, 1924.

(129) E.E. Power & M.M. Postan (eds.), Studies in English Trade in 15th Century, London, 1933.

(130) E.E. Power, "Peasant Life and Rural Conditions C.1100~C.1500," in the Cambridge Medieval History, Vol. VII, Cambridge, 1932.

(131)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의 제1권은 中世農業生産을 中心으로 한 것으로서 파워가 급서한 다음해인 1941년에 포스탄과 하마쿠르 共編으로 刊行되었다.

(132) G.H.D. Cole, A Short History of the British Working Class Movements 1789~1927, 3 Vols, London, 1927.

특히 1920年代와 30年代에는 그때까지 蓄積된 研究成果 위에서 새로운 實證的 研究가 進展되고 그것을 基盤으로 한 理論的 再構成이 이루어지면서 經濟史學은 새로운 進展을 보게 되었으며 그 過程에서 「古典學說」들이 批判되었다.

마샬(A. Marshall)의 門下生으로서 1928년에 케임브리지大學 最初の 經濟史教授가 된 클레팸(Sir John H. Clapham)은 1921년에 그의 最初の 經濟史書인 『프랑스와 독일의 經濟發展』<sup>(133)</sup>을 出版하고 1926년에는 大著 『近代英國經濟史』<sup>(134)</sup> 第1卷을 이어 第2卷(1932年)과 第3卷(1938年)을 出版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數量的 統計的 方法을 大規模로 經濟史研究에 適用하였다. 특히 19世紀 前半期를 다룬 『近代英國經濟史』 第1卷에서 방대한 數量的 方法을 利用하여 이 時期의 經濟過程을 分析함으로써 經濟的 進步의 連續性과 그 評價에 있어서의 樂觀論을 主張하여 토인비의 · 古典的 產業革命의 激變 · 斷絶說과 悲觀論을 批判하였다. 클레팸의 이와 같은 方法과 史觀은 그후의 經濟史研究에 많은 影響을 미치고 애슈톤(T.S. Ashton), 필리스 던(Phyllis Deane)에 이어지는 클레팸主義者(Claphamists)가 英國經濟史學界에서 主流을 이루게 되었다. 그의 또 하나의 主著는 1944년에 出版된 2卷本의 『잉글랜드銀行史』<sup>(135)</sup>였다. 이 책은 잉글랜드銀行의 歷史를 各時代의 政治 · 經濟的 背景에서 實證的으로 分析한 研究로서 英國金融史研究에 先驅的인 役割을 하였다. 1938년에 케임브리지大學 經濟史教授職을 포스탄에게 넘길 때까지 클레팸은 『케임브리지 유럽經濟史』(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의 刊行企劃에 參與하고 遺稿는 1951년에 『英國經濟史概說』<sup>(136)</sup>로 出版되었다.

莊園의 古典學說에 관한 批判은 코스민스키(E.K. Kosminsky)와 포스탄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소련의 經濟史家이면서 英國中世經濟史家인 코스민스키는 1935年の 劃期的 論文 「13世紀의 賦役과 貨幣地代」<sup>(137)</sup>에서 非莊園的 所領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貨幣經濟와 地代形態의 관련을 解明함으로써 「古典學說」의 崩壞에 決定的 役割을 하였다. 1956年の 그의 『13世紀 英國農地史研究』<sup>(138)</sup>는 上記論文의 基本命題 위에서 中世封建社會의 基本적 構造로

(133) J.H. Clapham, *The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and Germany 1815~1914*, Cambridge, 1921.

(134) Clapham, *An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Vol. I, *The Early Railway Age 1800~1850*, Cambridge, 1926; Vol. II, *Free Trade and Steel 1850~1886*, 1932; Vol. III, *Machines and National Rivalries 1887~1914, with an Epilogue 1914~1929*, 1938.

(135) Clapham, *The Bank of England: A History*, 2 Vols, Cambridge and N.Y., 1944.

(136) Clapham, *A Concis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from the Earliest Times to A.D. 1750*, Cambridge, 1951.

(137) E.A. Kosminsky, "Services and Money Rents in the 13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V, No. 2, 1935.

(138) Kosminsky, *Studies in the Agrarian History of England in the 13th Century*, ed. by R.H. Hilton and trans. by Ruth Kisch, Oxford, 1956.

서의 農村構造를 史料를 統計的으로 分析하면서 究明한 것이었다.

코스민스키와는 立場을 달리하는 포스탄도 1937年の 論文「賦役의 年代考證」<sup>(139)</sup>에서 貨幣經濟가 발달한 13世紀에 오히려 賦役增加現象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實證하여 賦役의 金納化가 12世紀 이후 直線的으로 進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結果的으로 코스민스키의 主張을 뒷받침하였다. 그는 1939年の 論文「15世紀」<sup>(140)</sup>에서 로저스(Rogers)와 덴톤(Denton)의 對照의 見解를 比較 檢討하고 經濟史上 이 時期가 中世에서 近代에로의 轉換 期로서 重要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크레팰의 뒤를 이어 1938년에 케임브리지大學의 經濟史 教授에 就任한 포스탄은 最近에 이르기까지 中世의 農業, 商業, 金融, 人口 등에서 劃期的인 論文들을 發表함으로써, 그리고 『케임브리지 유럽經濟史』를 비롯하여 前述한 파워와의 共編著『15世紀 英國貿易研究』등 여러 책의 共同編者로서 戰前 戰後를 통해서 英國經濟史學의 發展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戰後에 포스탄은 『戰後유럽經濟史』<sup>(141)</sup>(1967年)와 『中世의 經濟와 社會』<sup>(142)</sup>(1972年)를 著述하고 그 동안 發表한 主要論文을 모은 論文集으로서 1973年에 『中世農業 및 中世經濟의 諸問題』<sup>(143)</sup>와 『中世의 商業 및 金融』<sup>(144)</sup>을 刊行하고 1971年에는 方法論에 관한 論集<sup>(145)</sup>을 刊行하였다.

이 時期의 特殊研究로서는 毛織物工業에 관한 히튼(H. Heaton)<sup>(146)</sup>과 립슨(E. Lipson)<sup>(147)</sup>의 研究가 있으며 비버리지(Sir William Beveridge)編의 『物價 및 賃金史』<sup>(148)</sup>(1939年) 등이 있다. 한편 概說書로서는 립슨의 1915年の 『英國經濟史』<sup>(149)</sup> 第1卷이 1937년에 第7版 全訂版으로 나왔으며 1931년에 나온 第2, 3卷은 1943년에 第3版 擴大版이 刊行되어 널리 普及

(139) M.M. Postan, "The Chronology of Labour Services,"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4th Series, XX, 1937.

(140) Postan, "The 15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IX, No. 2, 1939.

(141) Postan, An Economic History of Western Europe 1945~1964, Methuen, 1967 (拙稿, 「書評」, 『經濟論集』, 제 VIII권, 제 2 호, 1969年 참조).

(142) Postan, The Medieval Economy and Society: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100~1500, California Univ. Press, 1972.

(143) Postan, Essays on Medieval Agriculture and General Problems of the Medieval Economy, Cambridge Univ. Press, 1973.

(144) Postan, Medieval Trade and Finance, Cambridge Univ. Press, 1973.

(145) Postan, Fact and Relevance: Essays on Historical Method, Cambridge Univ. Press, 1971.

(146) H. Heaton, The Yorkshire Woolen and Worsted Industries from the Earliest Times up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Oxford, 1920.

(147) E. Lipson, The History of the Woolen and Worsted Industries, London, 1921.

(148) W. Beveridge with Collaboration of L. Liepmann, F.J. Nicholas, M.E. Rayner, M. Wretts-Smith and Others, Prices and Wages in England from the 12th to the 19th Century, Vol. I, Price Tables. Mercantile Era, London etc., 1939.

(149) E.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3 Vols, London, Vol. I, The Middle Ages, 1915; Vols. II~III, The Age of Mercantilism, 1931.



되었다. 그의 『英國社會의 發達』<sup>(150)</sup>은 주로 産業革命과 그 이후를 다룬 概說書로서 前著의 續編에 해당한다. 한편 1936년에 刊行된 히튼의 『유럽經濟史』<sup>(151)</sup>는 1948년에 改訂版이 나와 經濟史教材로 國際적으로 많이 利用되었다.

産業革命期の 研究에 크게 기여한 것은 에슈톤(T.S. Ashton)이었다. 그는 1924년에 産業革命期 製鐵業의 技術的 및 經濟的 側面을 包括적으로 다룬 研究<sup>(152)</sup>를 著述한 후 1937년에는 産業革命에 관한 文獻의 研究의 小冊子<sup>(153)</sup>를 著述하고 뒤이어 營業文書를 利用해서 産業革命期에 職人에서 大經營者로 成長한 스티브스(P. Stubs)의 成長過程을 考察한 著書<sup>(154)</sup>를 著述하였다. 이와 같은 諸研究를 기초로 하고 從來의 研究를 集約해서 그는 1948년에 『産業革命』<sup>(155)</sup>을 著述하였다. 이 著書는 클레팸의 見解=連續性 樂觀論의 立場에서 「産業革命」을 再構成한 것으로서 概說書이면서도 産業革命研究의 權威者인 에슈톤의 體系가 압축된 것으로 第2次大戰後의 産業革命研究에 큰 자극을 주었다. 그는 1955년에는 18世紀의 經濟史를 概說한 『18世紀 英國經濟史』<sup>(156)</sup>를 出版하였다.

옥스퍼드大學의 經濟史教授 하바쿠크(H.J. Habakkuk)도 포스탄과 함께 『케임브리지 유럽經濟史』와 『經濟史評論』의 共同編著者로서 英國經濟史學界에서 크게 기여한 學者이다. 그는 1940년에 17世紀末~18世紀前半期の 大土地所有制의 展開에 관한 先驅의 研究<sup>(157)</sup>를 비롯해서 16~18世紀에 있어서의 土地所有制의 變化와 近代의 地主制의 展開를 中心으로 한 諸研究論文<sup>(158)</sup>을 발표하였으며 그의 『19世紀 美國과 英國의 技術』<sup>(159)</sup>은 現代經濟理論의 分析道具를 利用해서 兩國間에서의 技術變化率의 差異를 生産要素結合比率의 觀點에서 究명한 野心的 著作이다. 그는 戰後의 英國經濟史學界를 主導한 사람의 하나이다.

런던大學 教授이며 女流經濟史家인 케러스·윌슨(E.M. Carus-Wilson)은 中世~中世末의

(150) Lipson, The Growth of English Society: A Short Economic History, London, 1949.

(151) H. Heaton, Economic History of Europe, N.Y. & London, 1936.

(152) T.S. Ashton, Iron and Steel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Manchester, 1924.

(153)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A Study in Bibliography, London, 1937.

(154) Ashton, An Eighteenth Century Industrialist, Peter Stubs of Warrington 1756~1806, Manchester, 1935.

(155)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London, 1948.

(156) Ashton,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the 18th Century, London, 1955.

(157) H.J. Habakkuk, "English Landownership, 1680~1740,"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 No. 1, 1940.

(158) Habakkuk, "The Long-Term Rate of Interest and the Price of Land in the 17th Century," Eco. Hist. Rev., 2nd Ser., Vol. V, No. 1, 1952; "Economic Functions of English Landowners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VI, 1953; "The Market for Monostic Property, 1539~1603," Eco. Hist. Rev., 2nd Ser., Vol. X, No. 3, 1958.

(159) Habakkuk, American and British Technology in the 19th Century, Cambridge Univ. Press, 1962.

工業 특히 毛織物工業과 外國貿易에 관한 研究에서 獨特한 業績을 남겼다. 그녀는 1941年の 論文「13世紀의 産業革命」<sup>(160)</sup>에서 毛織物工業의 縮絨工程에서 水力에 利用된 것을 內容으로 하는 技術進歩를 하나의 「産業革命」이라고 주장하였다. 1954년에 그녀는 그때까지 發表한 主要論文 8篇을 收錄한 論文集<sup>(161)</sup>을 刊行하였다. 그녀가 編集한 『經濟史論集』<sup>(162)</sup>은 1926年 이후 20年 동안 『經濟史學』 및 『經濟史評論』에 게재되었던 主要한 論文 22篇을 收錄한 것으로서 귀중한 論文에 쉽게 接近할 수 있게 함으로써 經濟史 研究에 큰 便宜를 주었다. 本編集에 뒤이어 1962년에는 第2卷과 第3卷이 出版되었다.<sup>(163)</sup> 한편 포스탄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大學의 經濟史教授가 된 매다이어스(Peter Mathias)는 釀造 특히 맥주工業에 관해서 多角的으로 詳細한 分析을 한 先驅의 研究<sup>(164)</sup>를 著述했으며 새로운 研究 成果를 吸收하여 敘述한 『最初의 工業國家』<sup>(165)</sup>는 오늘날의 學界水準을 나타내는 英國近代 經濟史著述로서 評價되고 있는 業績이다.

實證的 社會經濟史學이 主流를 이루이온 데 대하여 마르크스主義 經濟史學은 英國을 비롯해서 西유럽의 學界에서는 數的으로 劣勢에 있었다. 그러한 속에서 마르크스主義의 立場에서의 經濟史研究를 크게 자극한 것은 돕(Maurice Dobb)이었다. 그는 經濟學者였지만 1946年の 著書『資本主義發展의 研究』<sup>(166)</sup>는 유럽社會經濟史의 實證的 研究 위에서 資本主義의 成立과 발전을 體系의으로 敘述한 것으로서 이 分野의 基本的 文獻의 하나가 되었다. 그 속에서 돕은 資本主義를 一定한 生産樣式으로 보고 그 起點을 「小規模生産樣式」(petite mode of production)의 成立과 分解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은 돕의 認識方法은 方法上의 중요한 諸問題를 提示함으로써 「封建制에서 資本主義로의 移行」을 둘러싸고 國際的 論爭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移行論爭」의 重要爭點은 基本的으로 첫째는 封建的 生産樣式の 消滅時期 및 方法에 관한 問題와, 둘째는 商人資本의 性格과 役割에 관한 문제였다. 돕은 中世末~近代初에 成長한 商業資本이 그 自體로서 資本主義成立의 基本契機가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60) E.M. Carus-Wilson, "An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3th Century," *Eco. Hist. Rev.*, Vol. XI, No. 1, 1941.

(161) Carus-Wilson, *Medieval Merchant Ventures*, London, 1954.

(162)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ed. for the Economic History Society, London, 1954.

(163) 金宗炫, 「書評」, 『經濟論集』, 제IV권 第4호, 1965年 參照.

(164) Peter Mathias, *The Brewing Industry in England 1700~1830*, Cambridge, 1959.

(165) Mathias, *The First Industrial Nation: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700~1914*, London, 1969.

(166)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London, 1946.

그것은 絶對主義國家權力과 결탁한 封建反動的이고 保守的인 「前期的 資本」이있으며 따라서 資本主義成立의 起動力은 獨立的 生産者層의 成立과 分解에서 찾아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대해서 스위지(P. Sweezy)는 封建制를 「使用價値生産의 體系」로 그리고 資本主義를 「交換價値生産의 體系」로 認識하고 商品生産과 封建制는 相互排他的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商業·商業資本의 발달은 封建制를 外部로부터 解體시키는 起動力이 된다고 認識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對立된 主張에 대해서 日本의 高橋幸八郎과 英國의 힐튼 및 힐이 論爭에 參加하였다. 論爭의 過程에서 大體的으로 疇의 認識方法이 妥當한 것으로 생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封建制의 崩壞와 資本主義成立의 계기를 商品·貨幣經濟의 발달과 商業資本의 成長에서 찾는 것이 歐美學界에서의 支配的 學說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어느 한 쪽 立場에서 단 認識方法의 妥當性 여부를 一方的으로 規定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學說의 對立論爭을 통해서 學問의 발달이 자극되는만큼 그 論爭의 意義는 意見對立에 어떠한 結末을 지웠다는 데 있다기보다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研究를 자극했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事實「移行論爭」은 西유럽의 마르크스主義 經濟史家의 理論의 水準을 나타낸 것으로서 莊園制의 붕괴와 獨立自營農民=中産의 生産層의 成立과 分解, 絶對主義國家權力의 性格과 市民革命에의 展望, 封建制에서 資本主義로의 移行에 있어서의 「두가지 길」 등 基本的 諸問題에 관한 論議를 통해서 그들 諸問題에 관한 理論的 實證的 研究의 進展을 자극하였다. 『封建制에서 資本主義로의 移行』<sup>(167)</sup>은 1950~53년에 美國의 社會科學分野의 雜誌『科學과 社會』誌上에서 이루어진 論爭을 收錄한 것이다.

「移行論爭」은 그후 프랑스와 이태리의 經濟史家들에 의해서 프랑스의 綜合雜誌『라 땡세』(La Pensée)誌上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프로카치(Procacci)에 의한 「移行論爭」의 상세한 紹介와 批判에 이어 르페브르는 實證的 研究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封建制와 領主的 土地所有의 概念上의 混同을 指摘하면서도 스위지의 立場에서 論議를 展開하고 있으며 한편 소블은 疇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sup>(168)</sup> 「移行問題」는 第11回 國際歷史學會議에서도 中·東歐 歷史家들에 의해서 報告되었다.<sup>(169)</sup> 또한 「移行問題」는 日本의 經濟史學界에도 자극을 주어 論爭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한 研究가 活潑히 이루어졌다. 資本主義의 成立의 基礎過程에 관한 論議

(167) P.M. Sweezy, M. Dobb, H.K. Takahashi, R. Hilton, C. Hill,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A Symposium, London, 1954.

(168) George Lefebvre, Giuliano Procacci, Albert Soboul, "Une discussion historique, Du féodalisme au capitalisme," La Pensée, No.65, 1956.

(169) Arnošt Klima, Josef Macurex, La question de la transition du féodalisme au capitalisme en Europe Centrale (16<sup>e</sup>~18<sup>e</sup> siècles), XI<sup>e</sup> Congrès international des Sciences historiques, Rapports IV, Stockholm, 1960.

는 日本에서 일찍부터 있었으며<sup>(170)</sup> 그 成果는 大塚久雄, 高橋幸八郎, 松田智雄 編著『西洋經濟史講座』(全5卷, 1960~62年)로 結實되었다.

#### 4. 美 國

에슬리의 뒤를 이어 1906년에 하바드大學의 經濟史教授가 된 게이(E.F. Gay)는 슈몰러 밑에서 經濟史를 研究하고 1903년에 「16世紀 英國의 인클로우저」<sup>(171)</sup>를 發表하였다. 本論文은 統計資料를 利用한 經濟史研究의 하나의 先驅였으며 인클로우저의 展開와 그 社會的 영향이 從前의 研究와는 달리 큰 것이 아니었다고 함으로써 그후의 이 문제에 관한 通說이 되었다. 그후 그의 研究로서 발표된 것은 별로 없었으나 하바드大學에서의 經濟史教育과 學會活動<sup>(172)</sup>을 통해서 美國經濟史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著名한 經濟史家들을 포함한 34名의 門下生들이 執筆한 게이의 하바드大學 在職25年 記念論文集『經濟史에 있어서의 事實과 要因』<sup>(173)</sup>은 757面に 이르는 大論文集이다.

1920年代 이후에 美國經濟史研究는 크게 進展되었다. 게이의 門下生이며 독일 歷史學派의 經濟發展段階論의 影響을 받은 그라스(N.S.B. Gras)는 20年代에는 주로 英國을 中心으로 한 經濟史研究에서 많은 業績을 남겼다. 穀物市場構造의 展開를 통해서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을 밝힌 『英國穀物市場의 展開』<sup>(174)</sup>를 비롯하여, 『英國關稅史』,<sup>(175)</sup> 『經濟史概說』,<sup>(176)</sup> 發展을 古代에서 20世紀에 이르기까지 概觀한 『歐美農業史』,<sup>(177)</sup> 그리고 英國村落에 관한 個歐美의 農業別研究<sup>(178)</sup> 등은 注目되는 研究들이다. 그러나 그는 1927년에 하바드大學經營大學院(Business School)에 新設된 經營史(Business History)講座의 初代教授로 就任한 후 企業經營史研究에 注力하고 「經營史學」이 獨立學問으로서의 基盤을 確立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

(170) 大塚久雄 『近代歐洲經濟史研究序說』(1951年) 및 『近代資本主義の系譜』(1950年)와 그에 대한 批判的 立場으로서는 白杉庄一郎 『近世西洋經濟史研究序說』(1950年)과 矢口孝次郎 『資本主義成立期の研究』(1952年) 등이 있다.

(171) E.F. Gay, "Enclosures in England in the 16th Centu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XVII, No. 4, 1903.

(172) 1928년에 創刊되어 短命했던 *Journal of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의 최초의 발행인이라든가 1940년에 創設된 *Economic History Association*의 初代會長 등을 역임.

(173) *Facts and Factors in Economic History: Articles by Former Students of E.F. Gay*, Cambridge, Mass., 1932.

(174) N.S.B. Gras, *The Evolution of English Corn Market from the 12th Century to the 18th Century*, 1915.

(175) Gras, *The Early English Custom System: A Documentary Study of the Institutional and Economic History of Custom from the 13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Cambridge, Mass., 1918.

(176) Gras, *An Introduction to Economic History*, 1922.

(177) Gras, *A History of Agriculture in Europe and America*, N.Y., 1925.

(178) N.S.B. Gras & E.C. Gras,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an English Village*, Cambridge, Mass., 1930.

다. 게이의 뒤를 이어 1931년에 그라스가 編集人이 된 『經濟·經營史論集』(Journal of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은 美國에서의 最初의 經濟史雜誌일 뿐만 아니라 經濟史와 經營史를 連結시킨 最初의 雜誌이기도 하였다. 그는 1939년에 라슨(H.M. Larson)과 함께 『美國經營史例集』<sup>(179)</sup>과 그 동안의 研究를 기초로 한 體系의인 經營史의 通史로서 『經營과 資本主義』<sup>(180)</sup>를 出版하였다. 1931~50년에 그는 諸企業의 經營活動의 發展에 관한 個別研究集인 『하바드 經營史叢書』(Harvard Studies in Business History) 全16卷의 監修者로서 經營史의 方法과 대상을 具體化하였다.

한편 콜(Arthur H. Cole)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第2次大戰 이후 하바드大學 經濟學部를 中心으로 企業家史(Entrepreneurial History) 研究를 推進하는 데 中心的 役割을 하게 되지만 그에 앞서 1926년에는 美國의 毛織物工業에 관한 포괄적이고 基本的인 研究<sup>(181)</sup>를 발표하였다. 한편 러시아革命의 勃發과 함께 英國을 거쳐 美國 위스콘신大學과 후에는 예일大學의 古代史教授가 된 로스토브제프(M.I. Rostovzeff)는 古典的 大著인 『로마帝國의 社會經濟史』<sup>(182)</sup>(1926年)와 『헬레니즘世界的 社會經濟史』<sup>(183)</sup>(1941年)를 出版하였다.

1920年代 이후에는 經濟史의 諸分野에 걸친 特殊研究의 進展과 함께 그것을 기초로 한 방대한 概說的인 研究書들이 뒤를 이어 出版되었다. 1924년에 포오크너(H.U. Faulkner)는 『美國經濟史』<sup>(184)</sup>를 出版하였으며 그것은 그후 改訂을 거듭 1959년에는 改訂8版이 나오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標準的 概說書로서 널리 읽혀지고 있고 1976년에는 同書를 기본으로 한 全訂版<sup>(185)</sup>이 나왔다. 1932년에 나온 키크랜드(Edward C. Kirkland)의 『아메리카의 經濟生活史』<sup>(186)</sup>도 定評있는 概說書였고 그것은 1951년에 第5版이 나왔다. 샤논(Fred Albert Shannon)은 1934년에 美國經濟史에 관한 概說<sup>(187)</sup>을 썼고 1945년의 論文<sup>(188)</sup>에서는 터너 命題에서 가장 중요한 프론티어의 安全瓣說을 批判했으며 同年에 美國農業史에 관한 研究書<sup>(189)</sup>를 叙述하였다.

(179) N.S.B. Gras and Henrietta M. Larson, Casebook in American Business History, N.Y., 1939.

(180) Gras, Business and Capitalism: An Introduction to Business History, N.Y., 1939.

(181) A.H. Cole, The American Wool Manufacture, 2 Vols, Cambridge, Mass., 1926.

(182) M.I. Rostovzeff,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Roman Empire, 1926.

(183) Rostovzeff,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Hellenistic World, 3 Vols, 1941.

(184) H.U. Faulkner, American Economic History, N.Y., 1924.

(185) Harry N. Scheiber, Harold G. Vatter and H.U. Faulkner, American Economic History: A Comprehensive of the Earlier Work by H.U. Faulkner, N.Y., London, etc., 1976.

(186) Edward C. Kirkland, A History of American Economic Life, N.Y., 1932.

(187) Fred Albert Shannon, Economic History of the People of the U.S., N.Y., 1934.

이 책은 1940년에 改訂되어 American Economic Growth라 改題되었다.

(188) Shannon, "A Post Mortem on the Labor-Safety-Valve Theory," Agricultural History, XIX, 1945

(189) Shannon, The Farmer's Last Frontier; Agriculture 1860~1897, N.Y., 1945

하바드大學 教授였던 어서(Abbot P. Usher)도 『英國產業史』,<sup>(190)</sup> 『機械發明史』<sup>(191)</sup> 등 特殊研究를 발표한 후 1937년에 共著로 『近代유럽經濟史』<sup>(192)</sup>를 出版하였으며 1943년에는 『南유럽預金銀行史』<sup>(193)</sup>를 出版하였다. 한편 클라우(S.B. Clough)와 콜(Charles W. Cole)의 『유럽經濟史』<sup>(194)</sup>도 標準的 教科書로 版을 거듭하였고 그에 앞서 콜은 프랑스 重商主義에 관한 研究<sup>(195)</sup>를 발표하였다. 헉커(Louis M. Hacker)는 1940년에 植民地時代에서 20年代에 이르기까지의 獨特한 美國資本主義發達史<sup>(196)</sup>를 出版하였다. 그리고 1945년에는 經濟史의 大家들에 의해서 編集된 방대한 『美國經濟史』<sup>(197)</sup>가 刊行되었다.

해밀턴(E.J. Hamilton)의 「價格革命」<sup>(198)</sup>概念은 初期資本主義發達の 經濟的 背景에 관한 새로운 解釋을 提供하였다. 그리고 시카고大學 經濟史教授였던 네프(J.U. Nef)는 16~17世紀를 中心으로 한 英國經濟史研究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英國石炭產業의 成長』<sup>(199)</sup>에 이어 1934년의 論文<sup>(200)</sup>에서는 이 時期의 英國에서의 技術進歩와 大規模產業의 成長을 「初期產業革命」이라고 認識하여 產業革命論議를 자극하였다.

經濟學者이면서 第2次大戰後의 經濟史學에 刺戟을 준 사람은 슈페터(J.A. Schumpeter)였다. 그는 『經濟發展의 理論』<sup>(201)</sup>에서 經濟發展의 起動力을 企業家가 수행하는 生産要素의 「新結合」 또는 「革新」으로 봄으로써 第2次大戰後의 企業家史研究를 자극하였으며 그의 『景氣循環論』<sup>(202)</sup>에서는 長期, 中期, 短期의 세가지 活動의 同時的 併存의 假定이 導入되고

(190) Abbot P. Usher, An Introduction to the Industrial History of England, London, 1920.

(191) Usher, An Introduction to the Mechanical Invention, Cambridge, Mass., 1929.

(192) A.P. Usher, Witt Bowden, and Michael Karpovich, An Economic History of Europe since 1750, 1937.

(193) Usher, The Early History of Deposit Banking in Mediterranean Europe, Cambridge, Mass., Vol. I, 1943.

(194) S.B. Clough and Charles W. Cole, Economic History of Europe, N.Y., 1941.

(195) C.W. Cole, French Mercantilism 1683~1700, N.Y., 1934 및 Colbert and a Century of French Mercantilism, 2 Vols, N.Y., 1939.

(196) Louis M. Hacker, The Triumph of American Capitalism: The Development of Forces in American Histo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N.Y., 1940. 또한 그는 The Course of America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N.Y., etc., 1970을 著述하였다.

(197) Henry David, H.U. Faulkner, Louis M. Hacker, C.P. Nettels, Fred Albert Shannon (eds.), The Economic History of the U.S., 9 Vols, N.Y., 1945.

(198) E.J. Hamilton, American Treasure and the Price Revolution in Spain, 1501~1650, Cambridge, Mass., 1934.

(199) J.U. Nef, The Rise of the British Coal Industry, 2 Vols, London, 1932.

(200) Nef, "The Progress of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Large Scale Industry in Great Britain 1540~1640," Economic History Review, Vol. V, No. 1, 1934.

(201) J.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N.Y., 1934.

(202) Schumpeter, Business Cycles: A Theoretical, Histo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apitalist Process, 2 Vols, N.Y. & London, 1939.

英·獨·美國의 景氣循環에 관한 풍부한 歷史的·統計的 資料에 의한 分析이 이루어짐으로써 그후의 經濟史研究에 자극을 주었다.

특히 슈페터의 「新結合」 또는 「革新」의 理論은 第2次大戰後에 企業家史(Entrepreneurial History) 研究를 자극하였다. 그것은 슈페터가 그의 發展理論에서 中心的 位置로 끌어올린 企業家活動을 歷史的으로 究明하는 것이야말로 經濟史學의 中心課題라는 認識에서 展開된 것이다. 企業家史研究의 推進에서 中心的 役割을 한 것은 콜(Arthur H. Cole)이었다. 콜은 企業家活動을 통해서 近代經濟史를 再構成해야 한다고 主張했으며 그러한 問題意識을 기초로 해서 1948년에는 하바드大學의 經濟學部에 「企業家史研究所」가 設立되었다. 同研究所에서는 콜, 코크란(Thomas C. Cochran), 호셀리츠(B.F. Hoselitz), 레들리히(F.L. Redlich), 젠크스(Leland A. Jenks), 란데스(David S. Landes), 아이트켄(Hugh G. Aitken), 패세(Harold C. Passer), 로소브스키(Henry Rosovsky) 등을 中心으로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가 意欲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58년까지 同研究所의 存續期間에 機關紙인 『企業家史探究』(Exploration in Entrepreneurial History) 全10卷을 發行하고 『變動과 企業家』를 비롯한 多數의 『企業家史研究叢書』 등 많은 業績을 남겼다. 코크란은 『美國의 經濟制度』<sup>(203)</sup>를 刊行했으며 특히 콜은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의 「原論」이라고 말해지는 勞作 『社會的 環境에서의 企業』<sup>(204)</sup>을 著述하였다. 1953년에는 美國經濟學會와 經濟史學會를 위해서 編集된 論文集으로 『企業과 景氣變動』<sup>(205)</sup>이 出版되고 1965년에는 주로 『企業家史探究』誌에 掲載되었던 論文들을 모은 論文集 『企業探究』<sup>(206)</sup>가 出版되었다. 이들 學者를 中心으로 하는 先驅的 諸研究에 의해서 「經濟人」이 假定되어 經濟主體의 活動을 等閑視해 온 經濟史學에 있어서 經濟主體로서의 企業家活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와 관련된 研究도 크게 進展되고 있는 것이다.

(203) Thomas C. Cochran, *The American Business System: A Historical Perspective 1700~1955*, Cambridge, Mass., 1957. 金宗炫, 「書評」, 『經營論集』, 제 1권 제 1호(1967年 3月 參照)

(204) Arthur H. Cole,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Harvard Univ. Press, 1959

(205) Frederic C. Lane (ed.), *Enterprise and Secular Change: Readings in Economic History*, ed. for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nd the Economic History Association, London, 1953.

(206) Hugh G.J. Aitken (ed.), *Exploration in Enterprise*, Harvard Univ. Press, 1965.